Weekly 공감
2011.06.29 NO.115
gonggam.korea.kr

P21~41

나승연 평창유치위 대변인 "올림픽 유치 '유종의 미' 위해 최선" P6~7

중점기획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연임 확정… 글로벌 코리안이 쏟아진다 P14~19

gonggam.korea.kr

카툰 공감 만화공모전

"대한민국에 상상력을 입혀라!"

공모분야
① **카툰·만평**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 (공정사회 구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② **스토리만화·웹툰** G20세대 (G20세대의 좌충우돌 이야기)

공모대상 중학생 이상 대한민국 국민

공모기간 2011년 6월 20일 ~ 8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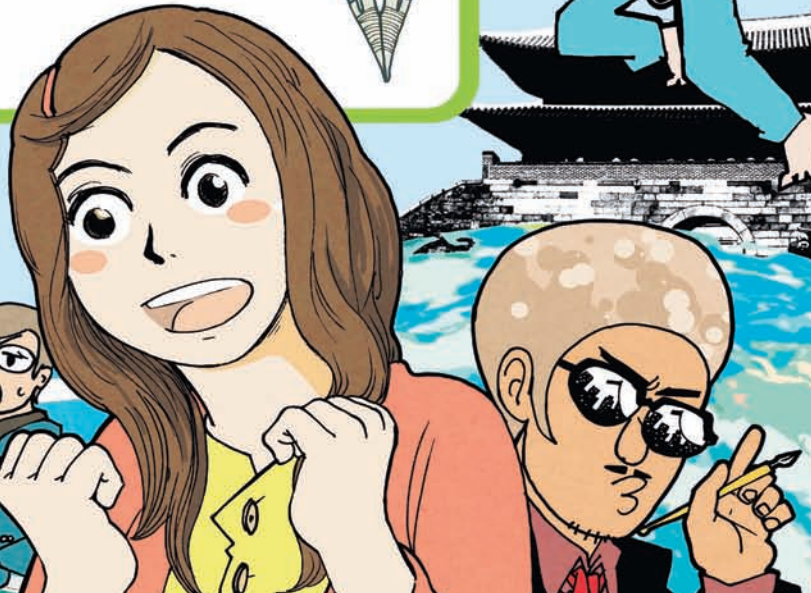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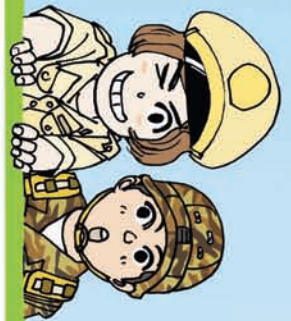
시상내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시상금 총 1,460만 원(대상 300만원)

제출자료 ①응모작품 ②응모지원서(작품당 1부, gonggam.korea.kr에서 다운로드)
❖ 컴퓨터로 작업할 경우 300dpi 이상으로 해야 하며, 반드시 프린트 출력물로 제출
❖ 출품 수 제한은 없으며, 개인 및 팀(4인 이하) 가능

제출방법
❖ 방문접수 : 2011년 8월 11~12일(10:00~16:00)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2011년 8월 12일) 소인 유효
❖ 접　　수 : (110-360)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번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콘텐츠과 만화공모전 담당자

문　　의 홍보콘텐츠과(02-3704-9987)

※ 자세한 내용은 공감 코리아(www.korea.kr),
위클리 공감(gonggam.korea.kr)에 있습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한국만화가협회

지역발전 목표는 삶의 질 향상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팀장

지역발전을 위해 거창한 '선도사업(flagship project)'에 사활을 거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런 사업의 추진 논리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삶의 질을 이루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소득,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자연환경, 공동체 화합 등이 모두 관계된다. 그러니 단시일 내에 정부 지원사업 몇 가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지역 구성원 스스로가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합심해서 움직일 때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가 증폭되는 법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자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지역정책 방향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가 번듯한 문화체육 시설이나 공연 시설을 지어 준다고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운영관리 프로그램 없이 만들어진 하드웨어 사업이 갖는 폐해는 전국에 산재한 유휴 시설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전의 지역개발 사업이 시설 조성에 매진한 데 비해 이제는 시설을 운영해 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채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주민의 소득, 문화, 여가, 복지 등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말이다. 올해부터 예산이 본격 지원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사업에 그런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또 지역사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 주도로 추진하게 해야 한다. 지역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현안이 다르므로 지역이 원하는 것은 지역이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의 '꼬리표'를 떼서 시·군이 원하는 사업을 재량껏 추진할 길을 연 것은 고무적이다. 지방재정 분야의 숙원이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지방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득기회,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자연환경, 공동체 화합 등 주민의 삶의 질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하다. 그러므로 정부 지원만으로는 단시일에 다양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어렵다. 지역 구성원 스스로 의지를 갖고 합심해서 움직일 때 비로소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간 협력이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이웃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접한 시설을 공동 이용한다든지 시·군 간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연계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도 최근 이루어 낸 변화이다.

이 같은 정책적 시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지방재정 여건도 어렵고 포괄보조금 제도 같은 것도 정착하기까지 시행착오를 좀 더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니 이제부터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낸 좋은 사례들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모범사례들을 찾아 배우다 보면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도 한층 가시화될 것이다. G

Contents NO.115 2011.06.29 통권 216호

일러스트 · 유현호

21

기획특집

전국 어디 살든 삶의 질 나아진다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각 시·군·구 단위의 기초생활권에서 삶의 질 높이기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낡은 골목을 매력적인 문화거리로 단장하고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가꾸기 위한 창조지역사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활기와 희망이 피어오를 때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표지 이야기 나승연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은 세계인들에게 평창의 열정을 알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오는 7월 6일, 평창의 운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판가름난다. 사진 · 한준호 기자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6.2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08

12

44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30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지난 호 두 병사의 자원입대 기사를 읽으며 그들이 가진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보내는 2년이란 시간이 아까워 군복무를 기피하는 청년들이 많은 요즘 두 병사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를 즐기라는 뜻의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처럼 2년간의 군 생활을 즐긴다면 오히려 그 시간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의 재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경표 (전남 목포시 산정동)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 다하길

"현재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노르웨이만 흑자'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재정흑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요즘 국민들이 느끼기엔 물가상승률이 정말 겁이 날 정도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처럼 정부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동진 (광주시 서구 양동)

앞으로도 금융위기 잘 극복할 것으로 믿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모범사례를 보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극도의 불안한 경제위기가 닥쳤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빨리 극복해 다른 나라들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음은 그만큼 정부가 위기를 잘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금융위기에 미리 대비하고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박지영 (부산시 북구 용수로)

나부터 한복 입어야겠습니다

"가정마다 옷장 구석에 한복 한 벌씩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한복을 입어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복을 떠올리면 '한복은 비싸고,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라는 편견이 많습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아도 한복 입은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입고 잘 알고 제대로 입어야 한복의 세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한복을 한번 입어야겠습니다."

고신희 (전남 영암군 삼호읍)

고양 벽화거리 보며 동심으로 빠져들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고양시의 벽화거리는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숨바꼭질하는 아이, 비눗방울 부는 아이 등 개성 넘치는 벽화들은 어느 순간 저를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또 벽에 걸린 골대와 노래 부르는 스타의 모습의 벽화를 보며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왠지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양시 벽화거리처럼 우리 동네도 이런 아름다운 아이들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 봅니다."

이영희 (전남 목포시 용당1동)

이 기사, 아쉬워요

"광개토태왕으로 불러 주세요"

'역사를 알면 영화가 재밌다'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이 아닌 '광개토태왕'으로 불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에 고구려역사탐방을 가서 광개토태왕릉비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비문에 보면 '국강상 광개토경평안 호태왕'으로 정확히 '태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정확한 호칭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윤 (중학생, 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단순한 국제비교 아닌 현실이 중요해"

아직도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과제인, 고용불안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국제비교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실업률이 낮은 상태이며, 예전에 비해 고용시장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데 단순히 주요국 청년실업률로 보아 괜찮다는 이야기는 현실과 멀어 보였습니다.

송혜림 (대학생,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알립니다

국악캠프 자원봉사자 모집해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2011 전국 국악캠프'에 참여할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 내용은 참가학생 인솔 및 각 전공별 주 강사 보조 등 재능기부다. 전남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에서 7월 25~29일 5일간 머무르며 봉사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 | 7월 8일까지
모집 대상 | 전국 국악전공 대학생, 각 전공별 1명씩
(대금 · 피리 · 해금 · 가야금 · 거문고 · 아쟁 · 타악 · 무용)
지원 혜택 | 국립남도국악원 내 연수시설 사용(교통비 및 숙식 제공)
신청 방법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 받은 후 이메일 및 우편접수
①songyi104@naver.com
(메일제목 : "국악캠프 대학생 자원봉사지원 - ○○○")
②(137-073)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내 국악연수관 1층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기획운영팀
("국악캠프 대학생 자원봉사지원" 명기)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참가지원서(소정양식), 재학증명서 각 1부씩
결과 발표 | 7월 15일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립남도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기획운영팀 이송이 www.ktpaf.org ☎ 02-580-3143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조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바로잡습니다 6월 22일자 114호 23쪽에 실린 '김영후 병무청장이 말하는 공정병역' 그래픽에서 60~69년생(41~50세)의 연령대별 면제율 0.5퍼센트는 30.5퍼센트로 바로잡습니다.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7월 5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3. 남한에서 유일하게 DMZ 공동경비구역(JSA) 안에 있는 특수 마을은? 행정관할 구역은 파주시.
5. '창조지역사업' 지역 찾기. 꿀벌 육종사업으로 활기찬 곳. 양궁으로 유명하며, 경북 북서부에 있죠. (힌트 27쪽)
6. 재해나 재난 등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돈.
7. '창조지역사업' 지역 찾기. '신소재산업 분야 광역경제연계 협력산업' 거점도시. 경포대, 오죽헌….
8. "늪 바닥엔 ○○○ 천지… KTX 지나다녀도 천성산은 '생태 낙원'…" 한국 토종의 양서류.

세로

1. '창조지역사업' 지역 찾기. 공룡 특화사업으로 유명한 곳. (힌트 25쪽)
2. '창조지역사업' 지역 찾기. 문화로 가꾸는 경관농업'. 낙안읍성, 송광사…. (힌트 26쪽)
4. '동쪽'(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조선 시대의 '아홉 능'
5.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
7.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호국 유적지. 참성단, 삼별초….

〈Weekly 공감〉 113호(6월 15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지속성 **3**반구 **4**모내기 **6**하지 **8**공정
세로 **1**지구 **2**성대모사 **3**반지하 **5**기부 **7**지대공

〈Weekly 공감〉 113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　종 · 전북 완주군 구이면
김예지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김평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이영호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이재복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국내 첫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올림픽홀'개관 축하무대에서 에프터스쿨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K팝 확장 정부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국내 첫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개관… 2015년까지 한류펀드 1조원 조성

1920년대 황성옛터를 시작으로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대중음악이 드디어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으로 전용 공연장을 갖게 됐다. 6월 2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올림픽홀'이 바로 그것이다. 올림픽홀 개막식에 맞춰 K-Pop으로 대표되는 세계 속의 한류 열풍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정부의 지원계획도 발표됐다.

지난 6월 2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반야월, 한명숙, 패티김 등 원로가수와 남진, 태진아, 현철, 주현미, 김흥국, 박미경, 김건모, 휘성 등의 중견가수와 슈퍼주니어(규현, 려욱, 예성), 2NE1, 애프터스쿨, 포미닛, 마이티마우스 등 아이돌 그룹이 장르와 세대를 넘나드는 합동 무대를 펼친 것이다. 이날 관객은 옛노래에 담긴 추억을 떠올리고 아이돌 그룹의 힘찬 무대에 열광하며 한국 가요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행운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한국 최초의 가요인 '황성옛터'부터 전 세계 한류팬들을 사로잡은 슈퍼주니어의 히트곡 'Sorry Sorry'에 이르기까지 한국가요사 90년을 아우른 이날의 무대는 국내 최초의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인 '올림픽홀'의 개관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이었다.

테니스장 리모델링… 대·소공연장에 각종 전시관도

올림픽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3년여에 걸쳐 기존의 테니스 경기장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만1천1백26평방미터 규모로 대공연장(고정 2천4백52석, 스탠딩 7백석)과 소공연장(2백40석), 상설, 기획전시관을 비롯해 지하에는 대중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뮤직 아카데미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이경호 기자

관객석의 크기를 기존 공연장보다 더욱 넓히고, 음악감상에 적합하도록 내부 시설물을 개선해 관객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띄었다.

올림픽홀에서는 연말까지 개관 기념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에어 서플라이 내한공연을 비롯해 김범수, 씨엔블루, 세시봉 친구들, 2NE1, 10cm, 남진, 정엽, 윤도현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나게 된다.

한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개관 행사에 앞서 우리 대중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문화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대표적 한류 콘텐츠인 K-Pop의 경쟁력 확보와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우호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K-Pop 붐이 불고 있는 해당 지역과의 상호 호혜 교류 환경 조성, 대중문화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추진 전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공연장은 인디음악의 산실로 육성

먼저 'K-Pop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디음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의 K-Pop 열풍은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불고 있는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인디음악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올림픽홀 소공연장인 '뮤즈라이브'를 인디음악의 산실로 육성하고, 인디음악의 인큐베이터인 '홍대 인디클럽'을 인디음악 활성화 거점으로 삼고 티켓팅·마케팅 등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지원 센터' 구축, 무대·음향 개보수 및 안전 점검 지원, 우수 클럽에 대한 공간 임대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K-Pop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한류 글로벌 펀드도 조성된다. 한류 콘텐츠 제작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게 될 한류 글로벌 펀드는 2015년까지 1조원의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내년 중국과의 수교 20주년을 활용한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등의 공동 제작 및 방송 편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북아 역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한·중·일 문화 콘텐츠 산업 포럼'의 장관급 격상도 추진된다. 글로벌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해 미주 등 지역으로 해외 저작권센터를 확대하고 세계 최초의 불법복제감시시스템(ICOP)의 활용 범위와 지역도 확대해 갈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K-Pop 공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전 세계 지역을 '글로벌 뮤직 벨트'로 묶어 K-Pop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초기 수익 보장이 힘든 중남미, 중동 등에 대한 K-Pop 공연 개최를 지원하고, 시장성이 입증된 아시아 시장은 기존 마켓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뮤직 어워드' 개최 등을 통해 단일 블록화하게 된다. 또 한류팬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해외 문화원 주관으로 각지에서 'K-Pop 콘테스트 예선전'을 열고, 결선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사업 재조정 및 재원 확대 등을 통해 한류의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한다.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문화원을 신설(2012년 31개 목표)하고, 유럽 한류의 핵심인 파리 문화원의 경우 유관 기관과 연계한 '코리아센터'로 재편하여 건물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G

글 · 이윤진 객원기자

올림픽홀 공연 일정

구분		공연명	일정
대공연장	개관 페스티벌	R-16 Korea 2011 비보이 세계대회	7월 2~3일
		세시봉 친구들 콘서트	7월 8~10일
		MINT PAPER "SUMMER FESTA" 노리플라이 콘서트	7월 16일
		2NE1 콘서트	8월 27~28일
		10cm 콘서트	9월 3일
	개관 기념 공연	에어 서플라이 내한공연	8월 16일
		김범수 콘서트	8월 20~21일
		씨엔블루 콘서트	9월 17~18일
	기획 공연	남진 45주년 기념콘서트	10월 8일
		2011 정엽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	10월 14~15일
		그랜드민트페스티벌	10월 22~23일
		조항조 콘서트	11월 19일
		YB(윤도현밴드) 콘서트	12월 29~31일
소공연장	개관 공연	옥상밴드 & 몽구스	7월 1일
		이승열 & 안녕바다	7월 2일
		장필순 & 오소영	7월 3일
		김두수 & 레프트이펙트	7월 3일
	인디 뮤지션 공연	인디뮤지션(헬로루키) 공개 오디션 -매월 10개 팀 본선 진출 우수 인디뮤지션 공연	7~10월 첫째주 (4회, 예정) 7~12월 둘째주 (6회, 예정)
	기타	장르 다양화 공연 지원 프로젝트	7 ~ 12월 중 (15회, 미정)

공연문의 · **올림픽홀** ☎02-410-1601

나승연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

"2월 실사단의 감동 꼭 결실 맺어야죠"

평창의 꿈은 이루어질 것인가.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들이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준비로 바쁘던 지난 6월 22일 아침 나승연 대변인을 만났다.

한준호 기자

아리랑TV 앵커 출신인 나승연 대변인은 외교관인 아버지(나원찬 전 주멕시코대사)를 따라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 영어와 프랑스어 등에 능통하다. 어릴 때부터 영어 방송에 관심이 많았고, 외국어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게 꿈이었던 그는 1996년 아리랑TV 공채 1기로 입사했다. 이후 4년여 동안 방송기자 겸 앵커로 활동하면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퀴즈프로그램 '퀴즈 챔피언'을 진행했다. 이후 여수엑스포유치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장재룡 전 사무총장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유치위원회 대변인은 외신기자 인터뷰 지원 등 IR(International Relations) 활동뿐 아니라 직접 프레젠테이션에도 참여하는 막중한 자리다.

외국인들에게 평창의 어떤 점을 강조하십니까.

"평창은 이번에 세번째로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기 때문에 '잘 맞춰진' 개최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중심으로 13개 경기장 가운데 7개 경기장이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시설들이 '콤팩트'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숙소와 운동시설이 밀집해 있어 선수의 80퍼센트가 5~10분이면 숙소에서 경기장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변인으로 일하는 동안 가장 기뻤던 일은?

"지난해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동계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쇼트트랙이나 좀 하는 나라' 정도로만 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피겨스케이팅에서 우승하고 스피드스케이팅 등에서도 선전(善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었나요.

"IOC 규정상 실사위원을 제외한 IOC 위원들은 현지를 직접 방문하

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IOC 위원이 평창을 잘 모르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20여년 전인 1988년 올림픽 때의 기억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때문에 평창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IOC위원들에게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천안함사태, 연평도 포격 등 안보위기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저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평창올림픽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먼저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는 이런 상태로 60년을 보냈고, 88올림픽이나 G20회담도 잘 치렀다. 걱정할 것 없다’고 설명합니다. IOC 위원들도 그런 일이 있고 나면 1~2달 정도는 걱정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경 쓰지 않더군요.”

평창의 경쟁지인 프랑스 안시, 독일 뮌헨에 대해 평가한다면?

“(웃으면서) 경쟁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두 곳 모두 유명한 관광지로 유력한 후보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1차례의 동계올림픽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두 차례만, 그곳도 일본에서만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키 및 스노보드 인구가 연간 10퍼센트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가 가진 이러한 무한한 젊음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창은 기온, 강설량 등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 10년간 평창의 겨울철 평균기온은 섭씨 영하 4도였고, 강설량은 38센티미터로 기온이나 강설량 모두 좋았습니다. 인공설 제조장비가 5백 대나 있어 설사 눈이 적게 오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과거 김운용 IOC 위원처럼 국제스포츠계와 직접 통하는 인물이 없어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과거 두 번과는 달리 이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적 어젠다가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양호 유치위원장,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등 많은 분이 하나로 힘을 모아주고 있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 대변인은 “지난 2월 IOC 실사단이 내한했을 때, 1백년 만의 폭설이 내렸지만 다음날 길을 다 치우고 어린이서부터 할머니까지 나와 실사단을 환영하던 감동적인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면서 “꼭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G

글·배진영 기자

나승연 대변인이 지난 3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74회 국제스포츠기자협회 총회에서 평창의 동계올림픽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8일 토고에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7월 6일 IOC총회에는 이 대통령 참석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짓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가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다. 더반 IOC총회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0여 년간 두 차례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평창은 이번에 세번째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

평창과 경쟁하는 독일의 뮌헨과 프랑스 안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휴양지다. 지난 2월의 IOC 실사단 평가, 지난 5월 로잔에서 열렸던 테크니컬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행운의 여신이 누구에게 미소를 지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로잔 브리핑 이후 AP·AFP·dpa 등 주요 뉴스통신 매체들은 평창을 ‘선두주자’로 꼽은 바 있다. 하지만 올림픽 전문 인터넷 매체인 〈어라운드 더 링스(ATR)〉는 지난 6월 7일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독일 뮌헨이 가장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ATR이 자체적으로 만든 파워 인덱스(Power Index)를 바탕으로 한 이 평가에 의하면 평창은 2위를 차지했는데, 평창은 특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분에서 10점 만점을 받아 경쟁도시들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반 IOC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IOC 위원은 모두 1백10명이지만, 실제 투표인단은 1백2명이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관례상 표결에 불참하고, 후보도시가 속한 나라의 IOC 위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권자나 불참자 등을 감안할 때 평창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49표 이상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는 6월 28일 아프리카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열린 아프리카올림픽위원회(ANOCA)총회에서 뮌헨·안시와 함께 마지막 합동프레젠테이션을 열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는 조양호 위원장,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피겨여왕’ 김연아 등이 나서서 ‘New Horizons’을 내건 평창에 한 표를 호소했다.

글·배진영 기자

"마라톤 금지약물 사용한 적 없다"

경찰 내사 종결… 지영준 "8월 대구세계육상선수권서 기록으로 보여주겠다"

육상계를 초긴장 상태에 빠뜨렸던 '금지약물 사용 의혹' 사태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지난 6월 23일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강원지역 모 고교 마라톤 감독과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사제 등을 이용한다는 첩보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결과 금지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정만화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과 지영준 남자 마라톤 국가대표 등 정 감독이 지도한 일부 선수들이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정 감독과 선수들이 자주 치료를 받은 충북 지역의 한 재활의학과의원를 수사했다. 이곳에서 선수들이 금지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일부 선수들이 빈혈이 없었음에도 철분제를 투여받았음을 확인했지만 해당 철분제는 금지약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 경찰은 최종 확인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해당 철분제는 경기력 향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

철분제 투여 경기력 향상과 관련없어

하지만 경찰은 해당 철분제가 금지약물은 아닐지라도 투여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육상계가 자체 심의하도록 통보했다. 철분제를 정맥주사 방법으로 투여한 것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경찰이 이번 의혹 사태를 무혐의로 종결하자 육상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사태가 오는 8월에 개최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대회 주최국으로서 이미지도 나빠지고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훈련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육상연맹은 "이 시간 이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에만 전념하여, 그동안 육상 국가대표를 믿고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신 국민과 육상 팬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의혹의 당사자였던 정 감독과 선수들은 다가오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 감독은 "끝까지 믿어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은 제게 많은 반성과 생각을 하게 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저 때문에 훈련에 미진했던 마라톤 대표 선수들과 함께 예정대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전지훈련을 잘 마쳐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육상계를 긴장시켰던 금지약물 투여 의혹이 무혐의로 밝혀졌다. 사진은 의혹 당사자 중 한 명인 지영준 선수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는 장면.

지영준 선수는 "8월 대구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기록과 성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의 수사는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이번 사태 자체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육상연맹은 이번 사태가 정 감독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의 결과인지를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변형주 기자

북한과 마주한 백령도 바닷가 곳곳에는 '용치'라 불리는 철심이 박혀 있다. 적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설치한 철심은 그 생김새가 용의 이빨과 같다 하여 용치라고 한다.

6월의 백령도 경계 "이상 무"

지난 6월 20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서는 주요 관광지마저도 물샐틈없는 경계가 이뤄지고 있었다. 6·25 61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6월 29일의 제2연평해전 9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불볕더위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지 않아 짙은 해무로 서늘함마저 감도는 백령도 해변에는 훈련 중인 해병대원들의 열기만이 가득했다.
KBS 2TV의 〈1박2일〉 촬영, 탤런트 현빈의 해병대 입대 등으로 이곳을 오가는 이들이 크게 늘었지만, 사실 백령도는 북한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비수와 같은 곳이다. 북한 황해도 장산곶과의 거리는 불과 15킬로미터, 평양과의 거리 1백50킬로미터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이다. G

글과 사진·서경리 기자

1 지난 3월 27일 천안함 폭침 1주년을 맞아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이 세워졌다.

2 용이 승천하는 형상의 '용틀임바위'. 지난해 천안함 피격 사건 때 용틀임바위가 보이는 전망대는 사건 현장이 한눈에 들어와 국내외 기자들이 몰렸던 곳이기도 하다.

3 백령도 진촌동 해안가에 세워진 심청각 주변에는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기된 해안포를 전시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6월 21일 조셉 데이스 유엔총회 의장(왼쪽)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한달에 지구 한 바퀴… '조용한 리더십' 인정

"2기 임기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개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6월 21일 재선됐다. 임기 초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반 총장은 특유의 조용하고 성실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 사태 수습, 중동 민주화 등을 이룩하면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거듭났다.

유엔총회는 지난 6월 21일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의 연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외신들은 이날 "192개 회원국 대표들이 반 총장 연임안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3초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2007년 1월 취임한 반 총장은 2016년까지 5년간 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에 앞서 6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반 총장에 대한 연임 추천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그의 연임을 일찌감치 확정지었다. 지난 6월 6일 반 총장이 재도전 의사를 밝히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은 잇달아 그의 연임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미국 백악관은 "반기문 총장의 리더십 아래서 유엔은 코트디부아르의 민주화, 아이티 대지진 극복, 리비아 위기 해결 등 국제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반 총장의 재선 도전을 환영하며 미국은 그의 연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재선가도는 비교적 순탄했지만, 임기 초 반기문 총장은 유엔 안팎에서 리더십 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임기 초엔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비판받아

취임 초 반기문 총장은 ▲유엔 사무차장보 이상 고위직의 재산 공개 ▲고위직 업무 평가 ▲현장과 본부 직원 간 인사이동 등 관료화된 유엔기구에 메스를 댔다가 유엔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여름 유엔사무국 감사실(OIOS) 책임자는 "반 총장이 이끄는 유엔이 투명성을 잃었고 책임감도 없다"는 내용의 메모를 미국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서방국가의 언론이나 외교관들은 그를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이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연임에 성공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축하전화를 하고 있다.

AP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작년 1월 대지진으로 파괴된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방문,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과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람(Invisible Man)'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2009년 모나 율 유엔주재 노르웨이 차석대사는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반 총장을 "매력 없고 줏대 없는 남자", "카리스마가 부족한 방관자"라고 폄하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정치권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반 총장을 2012년 대선후보로 거론해 그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외교부 재직 시절 "반기문의 반만 해도 성공한다"는 말을 들었던 반 총장은 그 특유의 성실함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반기문 총장이 취임 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을 순방한 거리를 환산하면 한 달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 셈이 된다. 알랭 르 로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사무차장은 "반 총장은 지진피해를 본 아이티, 코트디부아르, 수단의 다르푸르 등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 자신을 원하는 곳에는 항상 나타났다"고 말했다.

코트디부아르 사태·재스민혁명 과정 큰 역할

국제사회가 반 총장의 리더십을 결정적으로 다시 보게 된 것은 작년 11월 대선 이후 내전 상태에 빠졌던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수습하면서부터였다.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이 대선 패배 결과에 승복하지 않자, 반 총장은 현지 유엔군의 실질적 책임자인 최영진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통해 정치·군사적 압박을 가해 결국 그의 퇴진을 이끌어냈다.

반 총장은 올해 1월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북아프리카발(發) 재스민혁명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무바라크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이집트 국민들을 옹호했고, 리비아 사태가 터진 후에는 리비아 상공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지지했다. 카다피 일가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제일 먼저 거론한 사람도 반 총장이었다. 예멘·시리아 사태 등과 관련해서도 반 총장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종전에 반 총장이 중국 등의 인권문제에 침묵한다고 비판하던 휴먼라이츠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는 그의 '강력한 리더십'을 찬양하게 됐다.

아시아기자협회는 반 총장이 연임에 도전한 후인 지난 6월 14일 낸 지지성명에서 "그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시민이 독재정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유엔에 대해 비판적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감정을 자제하는 반기문 총장의 스타일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부분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유엔이 처리해야 하는 일들을 안정적으로 해왔다"고 평가했다.

산업화 이룬 대한민국 경험이 총장 수행에 큰 도움

반기문 사무총장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경험이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그는 연임이 확정된 후인 6월 21일 뉴욕주재 한국언론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인재(人災)를 볼 때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 노력한다. 어려운 이들에게 교사도 없는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 과거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가 다 도와주도록 노력하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강조하곤 한다."

이 자리에서 반 총장은 2기 임기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개발'을 꼽으면서 "이를 비롯해 여성 지위 향상, 핵 없는 세상, 질병 예방 등을 포함한 2기 청사진을 9월 유엔총회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G

글·배진영 기자

강경화 유엔인권차석대표

권오곤 유고국제전범재판소 부소장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가슴에 태극마크… 3백98명 활약

지난해보다 70명 늘어…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37명

글로벌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이 눈부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엔 사무국, 유엔 산하단체 및 전문기구, 국제금융기구, 정부 간 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인은 3백98명이다. 이 중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37명이다.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국제기구 진출 현황을 보면 주요 국제기구, 즉 유엔 사무국, 유엔 산하단체 및 전문기구, 국제금융기구, 정부 간 기구에 진출한 한국인은 올 5월 기준 총 3백98명이다. 지난해보다 약 70명가량이 늘었다.

유엔 사무국과 37개 유엔 산하단체 및 전문기구에는 2백33명의 한국인이 근무 중이다. 이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유엔 사무국으로 64명이 근무 중이다.

국제금융기구에는 6개 기구에서 총 1백33명의 한국인이 근무 중이다(2010년 6월 기준, 기획재정부 집계). 정부 간 기구에는 올 5월 기준 7개 기구에서 22명이 근무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12명의 한국인이 활약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에서 활약중인 한국인 수

기구	인원(명)	기구	인원(명)
유엔 사무국	64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1
국제원자력기구(IAEA)	30	세계은행	55
세계보건기구(WHO)	14	아시아 개발은행(ADB)	46
유엔아동기금(UNICEF)	13	국제통화기금(IMF)	22
세계식량계획(ESCAP)	12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5
아태경제이사회(ESCAP)	11	경제협력기구(OECD)	12

이 중 고위직에 근무 중인 한국인은 37명이다. 국제기구 사무국 국장급(D-1) 이상 간부로 22명이 진출해 있고, 선출직 의장단과 위원으로 11명이 활동 중이다. 국제재판소에는 4명의 한국인이 활약하고 있다.

강경화 유엔 인권차석대표는 한국여성 역대 최고위직

강경화 유엔인권차석대표는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인권차석대표는 한국 여성이 맡은 역대 유엔 내 보직 중 최고직이다. 강경화 대표는 외교 관련 인사로서는 드물게 방송인 출신이다.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은 국제법을 전공한 외교관 출신이다. 2002년 사무차장 선거에서 당선돼 재판소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연임에 성공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는 20개국에서 모인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선 영어·불어,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야 한다.

최종무 원장이 책임자로 있는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는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유엔 산하기구이다. 효율적인 정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정부혁신, 분권화, 전자정부화 등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2005년 서울서 열린 글로벌포럼에서 설립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신혜수 유엔 산하 ICESCR 위원

최영진 코트디부아르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이 결의돼 그 이듬해 서울에서 문을 열었다.

선출직 위원 중에서는 임규옥 국제식물보호협약(FAO/IPPC) 부의장이 눈에 띈다. 임규옥 부의장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사상 처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신혜수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ICESCR) 위원과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은 올해 취임했다. 신혜수 위원은 여성·인권 전문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임규옥 국제식물보호협약 부의장 등 선출직도 늘어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위원으로 당선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에서 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제안 사항을 권고하는 기관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함께 양대 국제사법기구 중 하나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대표는 한국인이다. 송상현 소장이 2009년 3월 선출돼 재판관 겸 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유고국제전범재판소(ICTY) 권오곤 부소장은 2008년 취임해 활동 중이다.

유엔사무국의 직위 중 3천3백여개의 직위는 '지리적 배분' 대상이다. 지리적 배분 대상 직위에 특정 국가 출신이 몇 명 근무하는 것이 적정한지 계산한 것이 '적정 지원 수'다. 유엔 예산 분담률과 인구 등의 조건을 고려해 적정 직원 수를 정한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유엔 예산 분담비율은 2.26퍼센트다. 연 5천3백만 달러로 1백92개 회원국 중 11번째다. 이에 비해 (지리적 배분 대상 직위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올해 우리나라는 유엔 '과소진출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 G

글·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국제기구 사무국 국장급 이상 간부

이름	직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최영진	코트디부아르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강경화	유엔인권차석대표
김원수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 차장
최순홍	유엔 정보통신기술 사무차장보
신영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
김광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태지역 사무소장
최수향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현장조정국 부국장
소만호	식량농업기구(FAO) 방콕 사무소장
최종무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박종균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발전국장
김성진	국제해사기구(IMO) 예산부국장
민경래	국제해사기구 협력부국장
김은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태지역 사무소장
박영우	유엔환경계획(UNEP) 아태지역 사무소장
손귀엽	유엔개발계획(UNDP) 방콕 사무소장
윤여철	유엔사무총장비서실 국장
이현숙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아태정보통신기술센터(APCICT) 원장
하동우	아태경제사회이사회 교통국장
정래권	아태경제사회이사회 환경개발국장
한필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사선수송폐기물 안전국장

국제기구 선출직 의장단·위원회 위원(장)

이름	직위
정진성	유엔 인권이사회(HRC) 자문위원회 위원
박용안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위원
유병화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집행이사
이만기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
이병열	세계기상기구 농업기상위원회 의장
이양희	아동권리위원회(CRC) 위원
박해윤	분담금위원회(COC) 위원
임규옥	국제식물보호협약(FAO/IPPC) 부의장
신혜수	유엔 산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ICESCR) 위원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
장만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행위원회 위원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겸 소장)
권오곤	유고국제전범재판소(ICTY) 부소장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박선기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

‘전문성·역량·활동성’ 3개 열쇠는 기본

공석 때마다 1명씩 채용하지만 자리는 많아… 글로벌 경험이 유리

유엔의 기능상 채용 대상은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력사원이다. 유엔이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팀워크, 책임감, 기획 및 조직력, 고객지향 태도, 기술지식, 지속적인 학습, 창의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정(情)에 기반을 두고 ‘우리’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은 국제기구에서 팀워크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요즘 유엔 등 국제기구 취업에 관심이 많다.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유엔취업’은 특히나 인기가 높다. 하지만 그처럼 선망하는 ‘유엔취업’(UN employment)을 제대로 이해하지 채 준비한다면, 오히려 ‘실업’(unemployment)이라는 결과를 맛볼 수 있기에 다음의 몇 가지 조언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유엔은 T자형 인재, 즉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해당 전문성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찾고 있다.

유엔의 기능상 채용 대상은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력사원임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유엔을 일반 기업과 같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지원하는 ‘직장’ 중의 하나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또한 ‘경력사원’이란 그저 연차가 3년 또는 5년 혹은 대리나 과장급 역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용 영역에서 ‘순차적으로 책임이 증가한 업무경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에는 8개의 직업군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경제사회개발 ▲

조선DB

유엔거버넌스센터가 2009년 8월 코트디부아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인 직원들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관리·운영지원 ▲정무·평화안보 ▲정보·통신기술 ▲법무 ▲공보·대외관계 ▲회의운영 ▲안전·보안 영역 등이 있다(careers.un.org 참고). 따라서 유엔으로 진출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직업군에 속하는 특정한 직무 관련 분야에 3~5년간 근무하면서, 담당하는 프로젝트의 책임권한을 키워 나가는 경력을 추가해야 한다. 연구원 등 전문연구개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정책 분야 경험을 하다가 유엔에 진출하는 경우도 많기에,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정책 경력을 충분히 쌓아 두는 것도 괜찮다. 행정직원(General Service) 계열이 아닌 전문직원(Professional) 계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연구논문, 국제회의 초청 유무, 저술경험 등이 있으면 유리하다.

나라일터(gojobs.mopas.go.kr)의 국제기구채용정보 사이트. 유엔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핵심역량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 등 여덟 가지 핵심역량 준비를

유엔에서 일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해야할 것은 바로 유엔이 정한 여덟 가지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이다. '역량'이란 지능(intelligence)을 포함하되, 그 너머의 태도와 실천력을 포함하는 일종의 '실제 수완'을 말한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실제로 잘 수행하고 완수하는 경우에 우리는 '수완이 좋다'는 표현을 한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은, 단지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가능한 사람'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유엔은 조직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의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 이를 여덟 개의 핵심역량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책임감 ▲기획 및 조직력 ▲고객지향 태도 ▲기술지식 ▲지속적인 학습 ▲창의력 등이 포함된다.

역량은 '오래된 미래'라고도 불리는데, 과거에 발현된 역량이라면 미래에도 가능하다는 신뢰를 전달해 주기에 특정 분야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역량은 쉽게 말해 자신의 체험이자 이야기다. 자신의 전문분야, 관심분야가 창의력, 책임감, 고객지향 태도 등 각각의 체험으로 실제화되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문성과 역량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유엔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라는 것이다. 유엔에서 일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직장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즉, 전 세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세계시민으로 반응하며, 그에 대한 활동가로서의 삶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매년 유엔에는 다양한 기념일이 존재한다(www.un.org/events 참고). 관심 있는 이슈를 정해 해당 이슈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가능한 캠페인 등을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

한국인의 특성은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봤을 때 장점일까 단점일까.

한국인은 근면하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점이 다른 나라 출신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팀워크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동양적인 겸양의 태도도 유엔과 같은 치열한 현장에서는 '무능'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반면에 정(情)에 기반한 접근방식, 영어로도 'I'(나)라는 말 대신에 'We'(우리)를 습관적으로 쓰는 경향은 '팀워크'를 증진하고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엔은 일반직장과 달리 '활동가'를 원해

유엔이 비록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그저 전문가를 원하는 학계나 연구소와 다른 점은 철저하게 '활동가' 직원을 선호하며, 앞으로도 더욱 선호할 흐름이기 때문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직원들이 실제 '결과중심'의 업무성과를 추진하도록 지속적인 유엔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을 유엔은 찾고 있다.

유엔은 공석이 발생하는 특정자리를 1명 채용할 뿐이고, 그 특정자리 채용이 지금도 수백 수천 개가 된다. '상반기 5백명 채용' 같은 개념의 일반적인 구직활동과는 다른 시스템이란 뜻이다. 그 특정자리가 원하는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 자신의 영역이기에 즐겁게 그것을 준비해 보라. 그리고 우선 유엔 밖에서 그것을 행동에 옮겨보라. 그럴 때, 그 1명의 자리가 당신의 것이 될 확률이 높다. G

글 · 김정태 (유엔거버넌스센터 홍보팀장)

2011. 사회서비스 박람회

7.1(금)-2(토)

SETEC 세텍 3호선 학여울역 1,2 전시장

주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주관 KASSA 사단법인 Korea Association of Social Service Agents 한국사회서비스산업협회

후원 국회사회서비스포럼, 한국사회서비스학회

기 획 특 집

비교의 비극을 딛고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한다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각 시·군·구 단위의 기초생활권에서 삶의 질 높이기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낡은 골목을 매력적인 문화거리로 단장하고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가꾸기 위한 창조지역 사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활기와 희망이 피어오를 때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러스트 · 유현호

대전시 유성구의 농촌체험마을인 선창마을을 찾은 아이들.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업으로 지역사회에 활기가 돌아야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늘어날 것이다.

"창조하라, 그리하면 발전할 것이다"

지역 여건 맞는 독창적 사업구상… 중앙 물심양면 지원 '약속'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창조'의 시대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지역개발이 아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중심의 지역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 창의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충남 서산시의 천수만을 찾는 철새들은 계절 따라 오가지만 인터넷 사이트 '한국의 새(www.birdcenter.kr)'에서는 사시사철 만나볼 수 있다. 이는 서산시가 '스마트'가 대세인 시대에 맞춰 '한국의 새' 홈페이지 내용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는 '버즈 오브 코리아 프로젝트(Birds of Korea Project)'를 통해 창조한 사업이다. 그 결과 창조지역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올해 1억6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2 경북 경산시 남매지 공원은 인근 주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이지만 재단장이 필요했다. 경산시는 매년 연꽃이 무성하게 피는 남매지 공원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연꽃식물원, 생태관찰덱 등으로 구성된 '로터스 플로팅 아일랜드 가든(수변생태 체험시설)'을 창조하고 있다.

서산시와 경산시의 두 사업은 지난해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된 13개 사업 중 일부다. 지난해 도입된 창조지역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기획했고, 각 부처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 올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 선정돼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창조지역사업 선정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22개 사업군으로 통합… 중앙과 지방의 역할 구분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창조지역사업이란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창의적 발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일차적으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이뤄지는 ▲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이다. 서산시의 '버즈 오브 코리아 프로젝트'나 경산시의 '로터스 플로팅 아일랜드가든'이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된 근거가 여기 있다.

창조지역사업의 선정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특별위원회에

조선 DB

2011 창조지역사업

지자체		사업명
대전	대덕구	배달강좌제
충북	음성군	동요 에듀케어 Project
충남	공주시	사이버시민과 5도2촌 주말도시 융복합 사업
	서산시	버즈 오브 코리아 프로젝트
전북	전주시	국선생 막프로젝트
전남	순천시	행복24시 정겨운 순천사람들
	순천시	문화로 가꾸는 경관농업
경남	고성군	공룡특화자원화-4D 입체
	남해군	생생테마랜드-에너지 자족 마을
	산청군	동의보감촌 문화콘텐츠 개발
경북	경산시	로터스 플로팅 아일랜드 가든
	예천군	꿀벌 우수 종봉선발 사업
강원	정선군	아리랑의 고향 정선 조성
총계		12개 시·군·구, 13개 사업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서 여러 요건을 검토해 결정한다. 지역발전위원회가 들고 있는 창조지역사업의 첫번째 요건은 역시 '창조성'이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독창적 사업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되, 사업 설계와 추진 과정이 창조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시설물 건립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둘째 요건은 '내발성'이다.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만으로 일정 기간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011년 이전 계속사업을 포함하되, 필수요건은 아니다.

셋째, '지역발전 기여도'를 따진다. 문화적, 그리고 사회·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새롭게 이끌어낸 사업이어야 한다.

마지막 요건은 '주민참여'다. 사업의 구상 및 실천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거나 참여가 예정된 사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정리하면 창조지역사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계다. 이렇게 지역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자율과 창의성에 주목하는 창조지역사업의 뿌리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두고 있다.

지난 2008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란 목표 아래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초광역개발권·광역개발권·기초생활권이란 '3차원 지역개발전략'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국의 1백63개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지난해 수립됐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됐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기초생활권 관련 지원사업을 22개 사업군으로 통합, 단순화하는 동시에 자율적·창의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자율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졸속 추진돼 온 기존의 지역사업들이 보여준 '한계' 때문이다.

'하드웨어' 중심 졸속 추진사업 원천봉쇄

지역발전위원회 한민호 정책분석과장은 "중앙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지자체가 '일단 벌여놓은' 숱한 사업들의 공통점은 몇몇 사람이 단기간에 결정해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수십억 원씩 들여 드라마 세트장을 세워놓고 속절없이 유지비만 들어가는 흉물로 방치된 지자체가 40곳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수석연구원은 "창조지역사업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주체들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창조적 아이디어가 표출될 수 있도록 사업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G

글·박경아 기자

학습을 자장면처럼 배달합니다

원하는 장소 · 시간에 강사 무료파견… 평생학습센터 건립비용 아껴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지난 2009년 3월 도입한 '배달강좌제'는 주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강좌를 개설한 후 구청에 강사를 요청하면, 구청에서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무료로 파견해 주는 제도다.

'배달강좌제'는 철저한 역(逆)발상의 산물이다.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려다가 재정여건상 어렵게 되자 '주민이 원하는 곳에 강사를 보내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일본 야시오시시(市)에서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보내 시정을 홍보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개설되는 강좌 과목은 건강체조·요가·오카리나·풍물·점토공예·냅킨아트·동화구연·종이접기 등 다양하다. 지난 5월 말까지 개설된 강좌는 2천97개에 달한다.

배달강좌로 사진을 배우는 대전시 대덕구 법2동 수강생들이 동춘당공원으로 첫 출사를 나선 후 기념촬영을 했다.

5명 이상 신청하면 OK… 개설된 강좌 2천여개

5명 이상의 주민(개인, 학교, 학습기관, 경로당, 사업체)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강좌가 개설되는데, 지난 5월 말까지 1만3천3백49명이 수강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강사료는 구 예산에서 지급된다. 그동안 1천2백63명이 강사로 등록했으니 일자리 창출효과도 작지 않은 셈이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에 의하면, 강좌가 열리는 장소는 70퍼센트가 일반 가정집이며, 도서관·복지관·주민센터·학교·경로당·교회 등도 많이 이용된다고 한다. 배달강좌제는 염홍철 현 대전시장의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올 하반기부터는 대전시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 당진,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에서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2009년 10월 경기도 구리에서 열린 국제평생학습세미나에서는 배달강좌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평생학습 사례로 소개되어 영국·호주 등에서 온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배달강좌 개설 초기부터 "학습이 자장면처럼 배달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 화제를 모았던 대덕구청은 작년에는 자장면과 피자배달부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업무표장과 서비스표 등록까지 마쳤다. G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

"평생학습 분야에서 교육양극화 극복"

배달강좌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우리 대덕구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조금 늦은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대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으리으리한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짓는데, 아무리 해도 수백억 원의 돈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다.

그러던 중 문득 '건물을 지어 놓고 주민들을 모이게 하는 대신 주민들에게 강사들이 가서 가르치는 방식을 택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백억 원짜리 건물을 지을 돈으로 적어도 50년 이상은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다."

배달강좌제의 장점 가운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기존의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었다. 배달강좌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평등하게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어, 평생교육 분야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배달강좌제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배달강좌제는 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학습을 원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학습서비스이고, 인간 중심의 평생학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룡의 환생… 한국판 쥐라기 공원

2년 전 엑스포 때 2천8백억원 경제효과… 지역 홍보 · 살림 1등공신

경남 고성은 공룡의 고장이다. 5천여 족(足)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산재해 있는 고성군 덕명리 해안 일대는 세계 3대 공룡 화석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천연기념물 411호).

2002년 당선된 이학렬 군수는 지역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공룡'에 착안했다. 이후 그는 '공룡군수'가 됐다. 2006년 제1회 고성공룡엑스포를 개최했다. 1백54만명의 관람객이 몰렸고, 84억원의 흑자를 냈다. 2009년 2회 공룡엑스포 때는 1백71만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수입은 1백18억원,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는 2천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성군은 작년에 정부에 공룡특성자원화사업을 지역창조사업으로 제안했다. 고성군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공룡에 대한 4D 입체영화제작 사업에 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4D 영화는 3D 입체영상에 공룡이 달릴 때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나 바람 같은 입체적 효과를 더한 것이다.

공룡 캐릭터로 4D 입체영화 제작 방안 연구

빈영호 2012 경남고성세계공룡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은 잘만 만들면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라며 "공룡 캐릭터를 활용한 뮤지컬을 만들고, 풀(Full) HD급 입체영화를 만들어 전국 극장에서 상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DB

2009년 열린 제2회 공룡엑스포에는 1백71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왔고, 2천8백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았다.

고성군은 내년 3월 30일~6월 10일 세번째 공룡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일부가 여수해양엑스포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관람 예정인원은 전보다 적은 1백42만명으로 낮춰 잡고 있다.

고성군은 공룡발자국 화석 밀집지역을 상족암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승지인 당항포관광지 인근에 공룡박물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고성군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찾아가는 공룡엑스포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그 첫번째 행사는 7월 8일~8월 28일 광주(光州)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광주광역시가 후원한다. G

글 · 배진영 기자

이학렬 경남 고성군수

"공룡엑스포 통해 '하면 된다'는 자신감 가져"

어떻게 공룡을 착안하게 됐나?

"군수가 되고 보니 외지인들은 강원도 고성(高城)은 알아도 경남 '고성(固城)'은 잘 몰랐다. 고성군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릴 방법을 찾다가 공룡에 관심을 갖게 됐다."

'공룡 = 고성'으로 인식하게 만든 비결은 무엇인가?

"국내에서 공룡을 테마화하려는 다른 지자체가 있었지만, '공룡 = 고성'이라는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며 독려했다."

그동안 공룡 관련 사업을 해온 것을 자평한다면?

"고성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민들의 자부심이 커졌다. 무엇보다도 두 차례의 공룡엑스포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주민들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내년에 열리는 공룡엑스포는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내년 공룡엑스포는 '하늘이 내린 빗물, 공룡을 깨우다'라는 테마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구환경의 변화로 멸종한 공룡을 통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버려지고 있는 빗물을 유용한 수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 앞으로도 공룡엑스포는 매번 새로운 주제를 발굴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순천만엔 철새 놀고, 들판엔 문화 익는다

벼를 활용한 친환경 경관농업 자리 잡아… 가을철 철새 관람객 몰려

세계 5대 습지의 하나인 순천만은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한 2백여 종의 조류가 찾아드는 철새의 낙원이다. 전남 순천시는 현재 사업비 6억8천여만원을 들여 순천만이 있는 대대동 일대의 농지 59만제곱미터에 친환경 '경관농업'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관농업은 농지와 농작물을 활용해 아름다운 볼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농가소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업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논과 밭에서 자라는 대규모의 유채꽃이나, 청보리 등이 대표적인 경관농업 작물인데,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벼를 활용해 경관농업을 시도하고 있다.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한 벼를 철새들에게 먹이로 제공하고, 논은 새들의 쉼터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과 철새가 공존하는 생태문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순천시의 계획이다.

멸종위기 흑두루미 올해 3백50마리로 늘어

순천시는 우선 상징적으로 농경지를 거대한 캔버스 삼아 흑두루미 모습을 재현했다. 87개 농가의 59만제곱미터의 농경지 중 약 7만제곱미터에는 색깔이 있는 찰벼와 흑미 등을 심어 하늘을 나는 흑두루미의 모습을 만들었다. 벼가 익은 가을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순천만을 내려다보는 용산 전망대에서 경관농업 지구를 바라보며 순천만의 풍요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

순천시

순천만 일대 농경지에 비상하는 두루미가 그려져 있다. 색이 다른 벼를 심어 표현한 것이다.

순천시가 이렇게 경관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와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순천시는 2006년부터 농약중독으로 인한 철새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친환경 경관농업을 추진해 왔으며, 겨울철에는 보리를 재배하거나 볏짚을 논바닥에 두어 철새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친환경 경관농업에 힘입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순천만을 찾은 겨울 철새는 1백23종 1만9천4백 개체로 늘어났다. 멸종위기인 흑두루미는 2007년 2백70마리이던 것이 올해는 3백50마리로 늘었다. G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

"철새·지역민·관광객이 함께 행복한 방법 찾아"

경관농업을 하게 된 동기는?

"철새와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경관농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철새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려면 안전한 먹이와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철새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해야 다른 농작물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지역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사업도 필요하다. 이처럼 농업을 관광과 연계하여 서비스 사업으로 끌어올린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경관농업이다."

경관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농민들이 스스로 경관농업을 추진하여 농업과 관광을 접목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경관농업으로 순천만을 보다 자연에 근접하게 하고 생태적 기능을 보강하여 사랑과 추억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만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순천만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면서 활용하기 위해 5킬로미터 후방에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에 다양한 형태의 생태정원이 조성될 것이다. 자연을 보존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순천이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모범을 보여주려고 한다."

'꿀벌의 메카'… 곤충이 지역 살린다

내년까지 밀원숲 · 격리 육종장 조성… 질병에 강한 우량 종봉 개발 추진

양궁의 김진호 선수를 배출한 경북 예천군이 '곤충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예천군은 1998년 폐교를 매입해 전국 최초로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여 주로 사과나 배의 수정용 벌(머리뿔 가위벌)을 생산·공급해 왔다. 2007년 7월에는 곤충생태체험관을 짓고, 그해 8월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개최하여 62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한 바 있다.

이런 예천군의 산업곤충 연구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작년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이어 '꿀벌 우수 종봉 선발 사업'이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국가의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예천군은 2012년까지 창조지역사업비 12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2억원)으로 상리면에 있는 예천곤충연구소 일대에 꿀의 원료가 되는 밀원숲과 격리 육종장 등을 조성하고, 질병에 강하고 로열젤리 등 봉산물(벌이 생산하는 산물)이 뛰어난 새로운 우량 종봉 2~3계통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1~2년 내 우수 품종 개발로 연 1백억원 소득

예천군 곤충연구소 꿀벌육종 연구담당 권천락 연구원은 "국내의 꿀벌은 오랫동안 잡종화되면서 꿀과 봉산물 생산능력이 많이 퇴화하였고, 기후 온난화로 양봉산업이 급격히 쇠퇴해 왔다"며 "믿을 만한 품종의 벌을 보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양봉농가의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예천군

예천군의 꿀벌육종연구센터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우수 꿀벌 개발과 보급을 위해 2009년 설립됐다.

우리나라에 양봉(서양벌)이 보급된 지 1백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종봉연구소나, 양봉 보급 기관이 없었다. 2007년 예천군은 양봉 선진국인 중국의 양봉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중국 지린성의 양봉과학연구소와 공동 연구협약을 맺었다. 이런 노력의 연장선에서 2009년에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꿀벌을 개발하기 위해 꿀벌육종연구센터가 건립될 수 있었다.

권 연구원은 "1~2년 내 우수 품종을 개발, 전국 3만3천여 양봉농가에 공급해 연간 1백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한국 양봉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했다. 꿀벌육종센터는 2014년까지 1만 수의 여왕벌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G 글 · 이상흔 기자

이현준 경북 예천군수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곤충사육기술 개발할 것"

꿀벌 육종 사업을 군에서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우수 종봉 개발은 곧 여왕벌의 품종개량 사업을 뜻한다. 여왕벌이 우수하지 않으면 꿀의 생산량이 적고 질도 좋지 않으며, 질병에도 약한 벌로 퇴화한다. 하지만 바쁜 양봉농가에서 여왕벌을 생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꿀벌육종연구센터가 우수한 여왕벌을 생산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예천군은 궁극적으로는 '꿀벌 종봉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꿀벌 육종 외에 곤충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소에서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나비 등 생태체험이나 정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곤충에 대한 사육 시범농가를 육성해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꼬리명주나비, 호랑나비 등의 자연서식지를 복원하여 곤충연구소를 찾는 관광객과 2012년에 열릴 곤충엑스포 행사에서 관람객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살아 있는 곤충을 보여줄 계획이다."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곤충산업 육성법의 시행으로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곤충 전문인력 양성과 돈이 되는 곤충 사육기술 개발에 힘써 농가소득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주막걸리 '원샷'… 세계적 명품주 '건배'

음식의 고장 명성 살려 '전주 국선생 막프로젝트' 진행

음식의 고장 전주시는 전주관광 활성화전략 차원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 '전주 국선생 막프로젝트'(이하 막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전주 음식과 전통 국민주를 즐길 수 있는 전주막걸리 문화를 관광상품화·산업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전주시는 2006년 9월 전주시 삼천동 등 막걸리업소 밀집지역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2007년 전통 막걸리골 테마업소 조성 선포식을 갖고 총 30개 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테마업소를 조성했다. 테마업소에 한지 등(燈)을 제작·설치하고 막걸리 지도를 제작해 시내 주요 관광지에 배포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막걸리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해 '전주주조'에 현대식 공장을 신축하고 자동화 생산시스템도 구축했다.

하루 1만2천 리터 생산… 일본 · 호주 등에 수출

이를 통해 1일 1만2천 리터의 막걸리 대량생산에 성공해 일본, 호주, 중국,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현지 생산공장까지 건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주 한옥마을 내 노인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인 전통주점 '천년누리봄'을 오픈,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다.

전북대 부설 막걸리연구센터도 개소했다. 4년에 걸쳐 진행한 막프로젝트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됐다. 막프로젝트가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된 후 전주시 측은 막걸리 프로젝트 추진 TF팀을 구성, 지난 5월부터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전주시

전주시에선 2006년부터 막걸리 문화 산업화 프로젝트인 '막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현재 전주시에는 1백여개의 막걸리업소가 성업하고 있다.

7월에는 막걸리 테마타운 경관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전주 음식축제 개최기간에 막걸리를 테마로 하는 '국선생 축제'를 동시에 열 계획이다. 전주시청 대외협력담당관실 김동우 홍보관리담당은 "실제로 막프로젝트가 이 지역을 도시관광명소로 발돋움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작년 한 해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 수가 3백50만명을 돌파한 것도 막프로젝트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2013년까지 사업비 18억원(국비 9억원)을 들여 막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 전주시장

"막걸리투어 40만명 오면 1백20억 경제효과"

'막걸리 테마촌'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나?

"막걸리 테마촌 간판 및 용기 표준화, 지역축제와 연계 방안, 우수업소 인증서 부여 등 세부화하고 있다. 테마촌은 위생·방역 지원, 한옥마을 내 막걸리 전문점 입촌 지원, 팸 투어 실시,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대 부설 막걸리연구센터를 설립한 목적은?

"막걸리연구센터는 지방마다 제조법이 다르고 효능에 차이가 있는 막걸리를 와인과 같은 세계적인 술로 상품화하기 위해 설립했다. 현재 센터와 연계해 고품질 막걸리 및 안주 등을 개발하고 있다."

막프로젝트가 지역활성화에 미친 영향은?

"2010년 기준 전주시내엔 1백5개의 막걸리 업소가 성업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연계 관광상품화와 막걸리 팸 투어 실시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했다. 추후 연간 40만명 정도의 '막걸리투어족'이 방문한다면 1인당 3만원 소비 시 1백2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주시는 '전주막걸리'를 우리나라 대표 전통 국민주로 육성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전주막걸리 체험이 전주관광 코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아리랑의 고향' 브랜드 가치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성… 국제화 · 스마트폰 앱 개발도 추진

정선군은 창조지역사업에 '아리랑의 고향 정선 브랜드 강화 사업'이 선정되면서 정선아리랑 브랜드 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선의 전통가옥 등 생활문화를 한곳에 집적시켜 놓은 정선아라리촌을 대상지로, 정선아리랑을 테마로 한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정선아라리촌을 명실공히 정선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문화정책 사업이다.

아리랑의 고향 정선 브랜드 강화 사업은 2013년까지 총 8억8천5백만원(국비 7억8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김우영 연구개발팀장은 "그동안 구축된 정선아리랑 관련 콘텐츠와 지역주민의 창조성을 결합해 정선아리랑 계승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팸투어 실시 후 본격 사업추진

이를 위해 정선군은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올해 정선아리랑제(9월 30일~10월 3일 개최 예정) 기간에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사업성을 평가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

아리랑의 고향 정선 브랜드 강화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별도의 홍보 마케팅 사업도 펼친다. 한국어·영어 버전의 문화관광 체험매뉴얼과 정선아리랑 소개 비주얼 아트북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선아리랑을 대표하는 홍보 캐릭터 아리(여)·랑이(남)도 개발하는 한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적용 앱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정선군

정선아라리촌의 모습. 창조지역사업 선정 후 '정선아리랑 문화체험촌'으로 조성된다.

관광정보센터, 야외공연무대나 저잣거리 등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추진단, 지역공동체 청소년·노인·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김우영 연구개발팀장은 "올해부터 지역의 성장동력 중 하나인 정선아리랑의 유·무형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G

글 · 박근희 기자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

"지역 아이콘에 대한 주민들 창조성이 관건"

'아리랑 사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창조지역사업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지역주민의 창조성을 결합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아리랑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지역주민의 창조성 개발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가?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인력개발, 기본 환경 정비 등 문화관광적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은 없나?

"보이지 않는 것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은 쉽지 않다. 하지만 '문화체험촌 조성 사업'과 정선아리랑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그 성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선아리랑은 우리 지역의 아이콘이자 보물이다. 필요한 것은 이 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선군은 이러한 능력개발, 즉 지역주민의 창조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번 '2011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에는 '꿈'과 '향수'를 테마로 1백여개의 농어촌 마을이 참여해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사진은 옥천장수마을의 삼색떡 만들기에 참여한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떡을 들어보이고 있다.

올 여름휴가? 농어촌으로 생태체험 가자

방학 앞두고 전국 1백여 마을 참여… 관람객에 맛보기 체험 선사

농어촌이 달라졌다. 잘 보전된 자연생태와 특색 있는 체험학습을 앞세워 농어촌이 여름철 휴가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23~2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1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에는 첫날부터 많은 관람객이 몰려 농어촌 체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와~ 내가 미꾸라지를 잡았어요!"

지난 6월 23일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장 안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려는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했다. 뜰채로 조심스럽게 미꾸라지를 잡으려는 아이와 펄떡거리는 미꾸라지에 놀라 놓쳐버린 아이 모두 즐거운 기색이었다. 어른 검지보다 굵은 미꾸라지는 인공 연못 속에서도 힘차게 헤엄쳤다.

곁에서 구경하던 어른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한 어르신은 "행사 끝나는 날 추어탕 끓여먹게 저 미꾸라지 좀 달라"며 안내원에게 행사 마지막 날이 언제냐고 묻기도 했다.

장수풍뎅이도 보고… 대게 탁본도 뜨고

최근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이 여름철 휴가지로 인기다. 농어촌은 자연생태 환경이 잘 보전돼 있고 지방마다 특색 있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어 가족단위는 물론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농어촌 여름휴가 체험마을 프로그램

지역		체험마을 이름		주요 체험 프로그램	홈페이지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녹색농촌 체험마을협의회	밝은세상마을	수생태체험 / 흙공예체험	www.greenlote.com
			초록미소마을	블루베리따기 / 전통맷돌체험	www.misovillage.co.kr
			바람새마을	습지탐사 / 수세미수확체험	www.balamsae.com
	이천시	이천농촌나드리	자채방아마을	딸기따기 / 모내기 / 트랙터 트레킹 / 열전사염색	banga.go2vil.org
			도니울마을	사과따기 / 떡메치기 / 미꾸라지잡기 / 땅콩캐기	doniwool.invil.org
			노성산정거장마을(수곡마을)	트랙터마차타기 / 노성산에코투어링 / 감자캐기	nsmtstation.com
			부래미마을	딸기양갱만들기 / 딸기따기 / 옥수수서리	buraemi.com
	양주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허브힐 농장	천연아로마비누만들기 / 허브차수확체험	yjherb.com
			초록지기마을	짚공예 / 오색쌀강정 / 솟대만들기	chorok.go2vil.org
강원도	춘천시	물안마을		별자리보기 / 소 밭갈이체험 / 토종꿀 채취	www.greentourings.or.kr
	홍천군	대평마을		한지공예 / 우렁이 방생체험	대평마을.kr
		바회마을		고추따기체험 / 산양 유착유체험	www.goesugli.com
	횡성군	사재산마을		전통두부만들기 / 맨손으로 송어잡기	www.sangahnri.co.kr
		횡성산채마을		버들치 몰이 / 나무피리만들기	www.sanche.co.kr
	영월군	유전리 녹색농촌체험 마을		전통혼례 / 삼굿체험 / 나무공예체험	3good.invil.org
		예밀포도마을		옥수수수확체험 / 포도수확체험	ym.invil.org
	평창군	평창그린투어 사업단 (happy700stay.com)	어름치마을	동강래프팅 / 칠족령 트레킹	www.mahari.kr
			눈꽃마을	숲해설체험 / 야생화물들이기 체험	www.snowtown.co.kr
			의야지 바람마을	겨울눈썰매 / 양목장체험	www.windvil.com
	양구군	양구 숨골권역		곰취떡메치기 / 곰취수확 / 캠프파이어	www.sumgol.co.kr
	인제군	냇강마을		선사뗏목타기 / 설피만들기	wolhakri.go2vil.org
		하추리 산촌마을		민물고기체험 / 계곡트레킹 / 콩타작	www.hachuri.com
		용대2리 백담마을		백담템플스테이 / 장담그기체험	baekdam.invil.org
		용대3리 황태마을		미시령트레킹 / 황태덕장체험 / 폭포 빙벽타기	www.yongdaeri.com/2009/main/
		하늘여울 소치마을		늠바우 산채 자연학습장탐사 / 민물고기잡기 / 더덕캐기	www.injegreentour.or.kr
		진동계곡마을		산나물채취산행 / 천연염색	www.jindongri.co.kr
		미산1리 고로쇠마을		리버버깅 / 야생화 관찰체험 / 화전민체험	www.misan1.org
	양양군	해담마을		수륙양용차체험 / 은어(산천어)잡기 체험	hd.invil.org
		송천떡마을		떡만들기체험 / 송이채취	songcheon.invil.org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농촌체험관광 연구회	옥천장수마을	뗏목타기 / 네발자전거타기 / 대나무낚시체험	jangsu.go2vil.org
			문화공간예곡	천연염색 / 천연비누만들기체험	nongsim.oc.go.kr
			청산연가	연근캐기 / 미꾸라지잡기	nongsim.oc.go.kr
			환평약초생태마을	약초체험 / 산나물채취	nongsim.oc.go.kr
			의성농장	한방다식 만들기 / 예절교육	–
	영동군	영동시항골마을		곤충체험 / 과일따기체험	www.sihang.co.kr
		금강모치마을		대나무활쏘기 / 짚풀공예	www.mochi.go2vil.org
		비단강숲마을		뗏목체험 / 과일잼만들기	www.bidangang.co.kr
	단양군	단양농촌체험마을협의회	소백산 가리점마을	약초비누만들기 / 가리점전통두부만들기 / 별자리관찰	garigeom.dyev.or.kr
			방곡도깨비마을	장담그기	www.bgri.kr
			한드미마을	삼굿구이 / 맥적맛보기	www.handemy.org

농어촌 여름휴가 체험마을 프로그램

지역		체험마을 이름		주요 체험 프로그램	홈페이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사자산마을	산양삼체험 / 산나물·약초체험	www.sindai.kr
			은골구기자마을	구기자따기 / 버섯따기 / 한과만들기	www.gugijamaul.co.kr
			장곡마을	청양고추모형만들기 / 백제문화탈만들기	jangkok.utovil.com
			꽃뫼마을	맥문동캐기 / 맥문동화분만들기 / 박쥐동굴체험	www.kkotmoe.co.kr
			용꿈꾸는마을	소나무화분만들기 / 멜론피클만들기	www.yongduri.net
	아산시	아산시농촌체험마을협의회	외암민속마을	전통혼례 / 다듬이체험	www.oeammaul.co.kr
			강당골마을	도예체험 / 솟대체험	gangdang.go2vil.org
			내이랑마을	뽕잎과 오디따기 / 유기농토마토비누만들기	e-rang.invil.org
			느티장승마을	–	
			기쁨두배마을	오토캠핑 / 배따기	asan.invil.org
	홍성군 하누리마을	홍성군농촌체험관광협의회	홍성문당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	벼탈곡 / 문패만들기 / 흑미염색하기	mundang.invil.org
			하누리마을	유기농사과열매솎기 / 황토채색 그림그리기	–
	태안군	태안농촌체험관광연구회	만대어촌체험마을	갯벌체험 / 설게잡기 / 배낚시 체험	mandae.seantour.org
			매화둠벙마을	둠벙생태탐방 / 쌀찐빵만들기 / 갈대배만들기	dumbeong.go2vil.org
	금산군	금산농촌관광협회	농바우마을	비단강 생태체험 / 농바우끄시기	nongbau.go2vil.org
			용화마을	고인돌체험 / 천연염색 / 전통주만들기	dragon.go2vil.org
			하양꽃빛마을	옥수수따기 / 다슬기잡기 / 향첩만들기	–
			홍도마을	인삼캐기 / 인삼화분만들기 / 손두부만들기	hongdofarm.co.kr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치즈마을		치즈만들기	cheese.invil.org
	진안군	뿌리협회	가막마을	산양삼·오미자수확 / 산나물캐기	www.가막마을.kr
	남원시	남원도시민 유치 협의회	춘향오디마을	–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농업기술센터	봉조마을	매실따기와 매실차담그기 / 꼬마솟대만들기 농촌전통문화체험	www.bongjori.net
			두계마을	전통놀이 / 떡메치기	–
			상한마을(하늘나리마을)	구운한과만들기 / 벌집분양 / 메실베개만들기	www.nari350.com
			봉정마을	자두따기 / 한우생태관찰체험 / 달걀꾸러미 만들기	–
			가정마을	두릅따기 / 짚공예 / 나룻배타기	www.gjvill.kr
			무창마을(황등쌀마을)	섬진강 생태체험/ 사과나무분양	rice.invil.org
	장흥군	수문마을		해수탕체험 / 조개잡이체험	sumun.seantour.org
		관산 사금마을		갯벌체험하기 / 대나무낚시하기	www.seantour.org/Portal/Exp/ListZone.aspx?regn=07&fvno=3824
	영광군	용암마을		모시송편 / 고구마캐기	yongam.invil.org
경상북도	고령군	개실마을 (역사전통마을)		엿만들기 / 한과만들기 / 대가야박물관	www.gaesil.net
	예천군	출렁다리녹색 농촌체험마을		출렁다리건너기 / 초간정(초당) / 회룡포 명봉사 / 용문사 / 석송령	www.yctour.kr/htm/menu21_choganjung05.htm
		삼강주막녹색 농촌체험마을		1박2일촬영지 / 떡메치기 / 양반자전거타기 / 곤충연구소 천문과학센터 / 전통마을	3gang.co.kr
	영덕군	차유어촌체험마을		대게잡이체험 / 미역채취 및 건조체험 달빛야간산행 / 풍력발전단지	gyungjeong.seantour.org
경상남도	창원시	다호리고분군마을		습지 / 수생식물관찰 / 옥수수체험 / 전통주만들기 유적지탐방 / 조릿대터널탐방 주말농장 / 노무현생가 / 북면온천	www.gobungun.com
		감미로운마을		수박수확체험 / 곤충채집체험 / 야생화수집체험 감비누만들기 / 주남저수지 / 철새탐사체험 늪지생태체험 / 노무현생가 / 부곡온천	www.sweetvillage.co.kr

단체도 많이 이용한다.

서울 우면동 '기쁜어린이집' 아이들도 이곳 행사장을 찾았다. 6~7세반 어린이 7명은 이날 짧은 시간 안에 전국 투어를 했다. 충북 영동군 영동시항골마을 부스에서 사슴벌레를 보고 경북 영덕군 차유어촌체험마을 부스에서는 대게의 탁본을 떴다. 아이들은 대게를 꽃게라 부르며 너도나도 탁본 뜨기에 열중했다. 이어 경기도 평택시 바람새마을에서는 새총을 쏘아보기도 했다. 지나는 길에 경북 고령군 개실마을에서 나눠주는 옥수수엿을 맛보고 마지막으로 공동체험장에서 비눗방울 놀이에 참여했다.

기쁜어린이집 김영희(40) 교사는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신기해하고 매우 좋아한다"며 "이곳 행사장 안에서 아이들이 장수풍뎅이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농어촌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1백여 개의 농어촌 마을이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산어촌 체험마을은 특색 있는 체험학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중 경북 영덕군 차유어촌체험마을은 지역 특산물인 대게의 탁본 뜨기로 아이들의 참여를 높였다.

마을마다 독특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차유어촌체험마을 김복식(63) 어촌계장은 "우리 마을에는 따개비 따기, 고동 뜨기, 성게 잡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다"며 "주변에 해수욕장도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책길도 있어 1박2일 코스로 제격"이라고 체험관광을 추천했다.

이 밖에 옥천장수마을의 삼색 떡 만들기, 임실치즈마을의 모차렐라 치즈 만들기, 양주시농업기술센터의 볏짚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았다.

또한 행사장 내 공동체험장에는 앵무새, 너구리, 토끼 등 살아 있는 동물을 전시해 볼거리가 더욱 풍성했다. 버블쇼, 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도 이어져 관람객의 좋은 쉼터가 되기도 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을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부스 곳곳에 전시된 다양한 지역 먹을거리들이 식욕을 돋웠다.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마을은 구수한 유기농 쌀과자 냄새로 관람객을 유혹했다. 부스 앞은 갓 구워져 나온 쌀과자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홍성환경농업교육관 류근철(52) 대표는 "우리 마을은 국내 최초로 오리농업을 실시한 곳으로 유기농업이 특징"이라며 "잘 보전된 자연생태 체험과 함께 유기농으로 지은 웰빙 음식도 맛볼 수 있어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여행의 묘미는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이다. 사진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의 볏짚공예 만들기(위쪽 사진)와 행사장 내 공동체험장에서 실시한 미꾸라지 잡기 체험.

문당환경농업마을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우수 체험마을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사체험과 함께 쌀겨비누 만들기, 문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구비하고 있다.

한편, 행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카페테리아에서는 바회마을의 표고버섯 탕수, 가평군청의 버섯구이 등 이색적인 먹을거리를 선보여 관람객을 즐겁게 했다.

이날 두 아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전미애(35·경기도 동탄신도시) 주부는 "올해 농어촌으로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 행사장을 꼼꼼히 둘러봤다"며 "아이들이 한과 만들기나 미꾸라지 잡기 등 체험학습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보니 어딜 먼저 가야 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G

글·이제남 기자 / 사진·한준호 기자

어디에 살든… 전국이 '나아지는 삶의 질'

올해 5개년 계획 2년차… 시·군이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원 맡아

우리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 살든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1백63개 시·군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한 지 1년이 지났다. 5개년 계획으로 지난해 시작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전국 1백63개 기초생활권마다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마다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풀뿌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 청소년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또래 문화에서 소외된 섬 청소년들이 음악과 춤, 문화에 대한 열정을 풀어내는 곳이 있다. 2009년 4월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문을 연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곳이다.

그동안 청소년 전용공간이 전무했던 완도군에 처음으로 문을 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해진 고교강좌' 등 강의와 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밴드, 댄스 등 동아리 활동, 포켓볼·노래·독서·음악감상 등 취미생활, 상주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상담활동 등으로 관내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완도군 '청소년 문화의 집' 대상 받아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의 청소년지도사 김은정(34)씨는 "우리 동네와 같은 섬에 사는 청소년들은 도시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누리는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다"며 "청소년 문화의 집이란 민음직한 공간이 생김으로써 문화적 갈증도 해소하고, 창의성을 기르고 문화적 소양을 쌓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단 한 곳의 청소년 문화의 집만으로는 완도군 내 12개 읍·면의 청소년들의 문화적 갈증을 다 채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해 '2010~2014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 관내 노화읍과 금일읍 2곳에 25억원의 사업비(국비 22억원, 지방비 3억원)를 들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이 시작된 노화읍의 경우 올해 착공, 내년까지 지상 2층, 연면적 8백25평방미터 규모로 동아리방, 영화관람실, 노래방, 당구대 등 취미활동과 상담실, 독서실, 소규모 도서관까지 갖추게 된다. 금일읍의 경우 내년에 착공해 2013년 완공될 예정이다.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박정록 실무관은 "완도군의 경우 고령자가 많은 대신 청소년의 인구는 10퍼센트 정도에 불과해 어느 지역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과 함께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4월 7일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완료를 발표하며 선정·발표한 우수발전계

전남 완도군에 처음 들어선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포켓볼, 난타와 밴드 연습장, 북카페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

획 20건 가운데 하나로 뽑혀 대상을 수상했다. 완도군과 함께 대상을 받은 곳은 전북 고창군, 충북 증평군 그리고 경북 영주시·봉화군이다.

역사적·지리적 특성상 동일 생활권에 속하는 영주시와 봉화군은 '영주씨(氏·여)와 봉화군(君·남)이 함께하는 다(多)그린 고향만들기'란 슬로건 아래 2010~2014년까지 5년간 진행할 지역발전 모델을 그려냈다. 이 공동발전계획은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는 양 시·군이 백두대간의 산림·생태 자원을 활용해 '백두대간 녹색성장의 심장'으로 도약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다.

조선 DB

강원 영월군과 경북 봉화군·영주시 경계에 있는 선달산(1,236 m) 정상. 이렇게 인접한 두 시군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도 함께 기획하고 시행한다.

영주시·봉화군 손잡고 백두대간 활용 협력

이 계획이 선정됨에 따라 두 시·군은 8개 부문 17개 협력 사업에 9천7백68억원, 1백41개 단독사업에 2조3천2백43억원을 투입해 양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두 시·군은 올해 양 지역과 인접한 단양, 제천, 영월, 평창 등과 함께 국비 14억4천6백만원을 지원받아 '6개 시·군 관광상품화' 사업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6개 지역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마련한 이들은 지난 6월 9~12일 홍콩에서 열린 관광박람회에 공동으로 참가했다. 또 서울 시내 6개소의 대형 전광판에 광고를 하고 있으며, TV광고는 촬영 중이다. 신세대 여행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중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관광정보는 '중부내륙기행'(www.ecentraltour.co.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각각의 시·군에서 진행 중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난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으로, 전국의 1백63개 기초생활권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문화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1백63개 기초생활권'이란 전국 2백30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69개구를 제외한 1백61개 시·군(75개 시, 86개 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더한 지역이다.

정부가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를 위해 2010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개별 시·군, 또는 시·군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나오게 된 것은 1995~2005년 농촌지역의 인구가 무려 18.6퍼센트 급감하고, 고령화율이 21.6퍼센트에 달하는 등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분포와 생활여건의 격차가 벌어져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날이 심화돼 왔다.

희망사업에 1백63개 시·군 자발적 참여

이용우 부여군수는 "기초생활권은 국토면적의 97.1퍼센트, 전 인구의 54퍼센트를 차지하는 큰 지역공동체이면서도 그동안 대도시권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며 "지역발전의 세계적 추세는 지역 자생력 확보와 정부 지원의 병행이다. 지역 자생력 없는 시혜적 국가지원은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여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난해 우수발전계획으로 선정됐고, '생태관광금강연계사업'은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군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사업체계의 간편화, 계획수립의 자율성 확보와 분권 확대, 시군간 연계협력에 의한 광역경제권 투자로의 확대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며 "시군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점, 타시군 연계사업의 지원인력과 재원 확충, 낙후지역 발전에 대한 처방 미비 등을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완도군

‘나눠주기’ 탈피… ‘똑똑한 사업’ 키워 준다

중앙정부 간섭 최소화… 지자체가 직접 세부계획 세워 추진

지난해 도입된 포괄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따라 지원되던 지역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세부계획을 세우는 자율적인 사업으로 개념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 유사·중복사업 난립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포괄보조금 제도는 보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역특화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됐다.

귀농·귀촌인구가 몰리고 있는 전북 진안군엔 다양한 농촌체험을 위한 내방객도 많다. 포괄보조금을 지원받아 귀농 희망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도 곧 들어선다.

운장산의 웅장함과 마이산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전북 진안군은 전국에서 귀농행정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귀농 희망자가 머물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은 ‘귀농·귀촌 1번지’로 불린다.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진안군은 최근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귀농·귀촌자가 약 3백50가구에 이른다.

‘귀농인의 집’은 2007년 진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귀농지원제도다. 지난 2001년 용담댐 준공으로 수몰지역이 생겨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진안군은 인구 감소로 군(郡)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적극적인 귀농정책을 펼쳐 왔다. 먼저 2006년부터 매년 옛날 촌락의 의미를 되살리는 공동체를 이뤄 가기 위한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를 열고 있다. 2008년부터는 매년 20개 마을이 참여하는 ‘진안군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군청 안에 ‘마을만들기팀’을 두고 귀농·귀촌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온 진안군은 2009년 10월 대산농촌문화상 농촌발전 부문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개별지원에서 벗어나 유사사업 묶어 일괄 지원

진안군은 나날이 늘고 있는 귀농·귀촌 문의와 내방객 증가에 따라 ‘귀농인의 집’을 더욱 발전시킨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6월 포괄보조금 지원을 정부에 신청했다. 그 결과 전체 예산 6억5천만원 중 50퍼센트를 지원받게 됐다. 센터 건물을 신축하

기보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군내 후보건물을 물색중이다.

진안군청 '마을만들기팀'의 이호율 주무관은 "연중 1천여 팀, 일주일이면 두세 팀이 귀농·귀촌 상담을 위해 진안군청을 찾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지원센터가 필요했다"며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해 숙소 제공과 각종 체험, 강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군에 지원되는 포괄보조금은 지난 2008년 지역발전위원회의 전신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역개발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화하고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 이양과 지방개발권을 강화하겠다"면서 추진돼 지난해 제도적으로 도입됐다.

일부 선진국들만 도입하고 있는 획기적인 '지방 자율기획 제도'인 포괄보조금 제도는 개별 지원되던 유사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일괄지원하는 형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을 직접 기획해서 지원 신청을 하면 정부가 포괄적인 사업군으로 묶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포괄보조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상당수가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바뀌어 10개 부처의 지역개발 관련 2백10개 사업이 22개 사업군으로 통합됐다.

지역에 필요한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효율적 시행

지난해 6월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각 부처 예산에 반영,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와 함께 확정된 포괄보조금 규모는 3조7천5백50억원이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유사 여부만 확인했을 뿐 중앙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했다.

전체 포괄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이다. 바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같이 농·산·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9천3백12억원의 포괄보조금이 지원됐다.

두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 환경부의 '상도수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군'으로, 3천7백27억원이 지원됐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천7백34만명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급수보급률은 93.5퍼센트에 이른다. 그러나 생활기반이 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3백30만명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상수도 시설 보급은 시급한 문제로 꼽혀 왔다.

이어 농어촌의 기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기반정비사업군'(농림수산식품부) 2천9백24억원, 관광자원을 개발해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광자원개발사업군'(문화체육관광부) 2천6백14억원 순이었다.

이밖에도 농어촌의 1차산업 생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군'(농림수산식품부)에 2천4백35억원,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추가투자를 위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군'(국토해양부)에도 2천2백1억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편성된 전체 포괄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의 3개 사업군 지원금을 합치면 1조4천6백71억원에 이른다.

정부 각 부처는 올 봄에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포괄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6월 말까지 부처별로 취합해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이수연 사무관은 "과거 정부 지원은 중앙 정부가 '나눠 주는' 개념이었다면 포괄보조금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방 주도로 결정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 시·군·구 공무원들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포괄보조금의 연속사업 지원 비율이 높아 효과를 못 느끼지만 3~5년이 지나면 지방 주도 지역발전사업이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2011년 포괄보조금 지원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지원 규모	관련 부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군	생활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	9,312억	농림수산식품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군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시설 신설과 보완	3,727억원	환경부
농어촌기반 정비사업군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2,924억원	농림수산식품부
관광자원개발 사업군	낙후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지역경쟁력 강화	2,614억원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군	농·어업 생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2,435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출처 기획재정부

“지역끼리 돕고 살자”… 수도권·지방 상생

연 3천억원씩 10년간 조성… 지역특화사업에 자금 지원

지난해 5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가 탄생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그것이다.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운용되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금을 투입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역일자리 창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중소기업 인턴 등 친서민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당초 목표보다 1만5천개 많은 6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고용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성공요인은 다양하다. 먼저 일자리추진본부와 투자유치본부 등을 설립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 성공요인으로 파악된다. 예산도 확대했다. 강도 높은 경상비 절약을 통해 7백7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경북의 예산절감률은 전국 평균 6.5퍼센트의 2배가 넘는 13.5퍼센트에 이른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2백31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상생기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상생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용하고 있다. 경북의 일자리 사업은 상생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상생기금의 운영주체는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조합)으로 현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조합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상생기금은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는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전환한 세금이다. 특이한 것은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조성된다는 점이다.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서 연 3천억원 출연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자치단체에서 걷히는 지방소비세의 35퍼센트를 떼어낸 돈이 상생기금의 재원이다. 부유한 수도권의 재원으로 비수도권을 지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상생기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편

조선DB

지난해 설립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3천억원의 기금 전액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입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경상북도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생기금의 일자리 사업 내역

구분		사업범위	상생기금 투입액(비중)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공부문	생산적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Post-희망근로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구조개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	1,596억원(55.2%)
	민간부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고용 우수기업 지원 확대, '청년창업 프로젝트' 확산	783억원(27.1%)
	지원체계 제도정비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정비, 일자리 정보 통계시스템 정비, 지역별 일자리 실적 공시 평가	6.4억원(0.2%)
기타 일자리 사업		2010년 행정안전부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 지역개발, 투자유치 등 일자리 창출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유발계수 등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	507억원(17.5%)

출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차가 크다. 수도권은 갈수록 부유해지는데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면서 살림살이가 악화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수직적인 재정 조정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와 기본 재정수요 보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상생기금은 지방정부들이 설립한 조합을 통해 기금을 자율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상복 상생기금조합장은 "상생기금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서 균형효과가 크지만 수도권의 세수 편중 해소와 개발이익의 지방환원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전략적 재정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이를 지방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는 일자리 창출에 기금 전액 투입

설립 첫해인 지난해에는 상생기금 전액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다. 2천8백93억원인 상생기금 배분액 가운데 82.5퍼센트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됐다.

지역에 따라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쓰인 배분액 비중은 달랐다. 서울, 인천, 부산, 충북 등 10개 시·도는 배분액의 80~1백퍼센트를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투입했고, 강원, 울산, 경남, 대전 등 4개 시도는 60~80퍼센트를, 광주는 58퍼센트, 전북은 30.7퍼센트를 이 부문에 활용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기획과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영철 공제회 조합기금부 재정연구관은 "지난해 지역 일자리 사업에 총 9천3백81억원을 투입했는데 이 중 24.2퍼센트인 2천2백67억원이 상생기금이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취약계층 17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9만명을 취업으로 연계했는데 이 가운데 24.2퍼센트는 상생기금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사업의 내용을 다양화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50퍼센트, 지역발전 사업에 50퍼센트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발전 사업은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된다. 자치단체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방의 잠재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구상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이상복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
"재원 늘면 지방채 인수로 지방재정 확충"

이경민 기자

이상복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공제회가 조합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이사장이 조합장도 맡고 있는 구조다.

"공제회는 상생기금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능률적인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공제회는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삼고 있고 약 1조원의 자체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노하우, 경험 면에서 준비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장은 조합이 설립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설립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상생기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여서 도입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상생기금이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고 이 이사장은 말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간 기금이 3천억원 수준인데 이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나누면 4억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기초단체 수가 많은 광역단체의 경우 배분액은 1억원 내외밖에 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금의 규모를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세제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높이면 자연히 상생기금도 증액된다. 경제발전과 함께 부가가치세액도 증가하므로 상생기금 규모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기금 규모가 현재의 5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재원이 확보되면 지방채 인수 사업 등을 실시해 지방재정의 안정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정체성이 살아야 창조성도 산다

사업의 목표는 주민의 자존감과 행복… 지자체·주민·전문가 협업 이뤄야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각종 지역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사정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창조지역사업이 성공하려면 4P(place, program, promotion, people)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세계의 도시들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도시의 문화성을 강화하고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관광이나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로 활용된다. 즉, 도시 차원에서 지역에 다양한 문화공간을 재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창조적 능력을 높여, 그 도시의 사회·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도시만이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에 부응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여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마다 창조도시·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도심재생 프로젝트나 유휴시설 재활용, 예술가를 위한 주거 공간 마련, 테마파크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브랜드 마을 구호 넘치지만 실효성엔 의문

수많은 도시가 무슨 도시, 무슨 지역을 칭하고 있고, 국제기구가 선정했다는 무슨 지구에 각종 브랜드 마을과 수백 개의 길들을 보면 가히 '지역 작명(作名)의 전성시대'를 보는 듯하다. 그러나 냉철하게 보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생긴다.

인천시와 LH는 2006년 프랑스의 '라데팡스' 같은 세계적인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며 '루원시티'의 화려한 청사진(왼쪽)을 제시하고 1조6천억원을 보상비로 투입했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해당 부지는 유령도시처럼 변해 흉물(오른쪽)로 방치되어 있다.

지자체들이 거금을 들여 마련한 많은 시설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구름 같은 방문객을 기대했던 곳이 개점휴업 상태다. 주민의 무관심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애초의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엉뚱한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실패들은 여러 가지 요소의 합작품이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 없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말든 일단 사업을 따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욕심, 지역의 규모나 역량에 관계없이 큰 예산의 사업을 선호하고 덩치만 키우려는 과욕, 어떤 식으로든 시설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안일한 마케팅 전략을 들 수 있다.

그외에 프로그램이나 운영 및 홍보는 액세서리처럼 붙어 있는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윗분의 뜻에 더 치중해야 하는 의사결정 구조, 지역의 토호세력과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나눠먹기식 사업진행, 건축 철학의 부재를 보여주는 치졸한 디자인적 안목, 빤히 보이는 리스크에 대한 무대책, 결과에 대한 책임의 부재 등이 있다.

이런 고질병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사업은 자꾸 생겨간다. 관변(官邊) 용역업자로 전락한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의 무성의한 보고서는 캐비닛으로 직행하고, 보따리장수식 업체들은 납기에 급급하여 함량미달의 자문의견을 쏟아낸다. 사심 없이 기여할 수 있는 타지(他地)의 전문가는 지역의 배타성에 배겨날 수가 없고, 힘센 지역민들은 일종의 권력이 되어 간다.

조선DB

역사 · 유산 · 자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예술가들은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마스터베이션식의 프로젝트만 벌여 놓고, 주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박수를 친다. 그 결과 쓰레기 같은 시설만 양산되어 흉물이나 애물단지로 전락하면 나중에 조롱거리 사례를 보기 위한 순례자만 찾아올 뿐이다. 그냥 시장의 원리에 맡겨 망하게 하면 딱 좋겠으나 거기에 들어간 국민의 혈세가 아까워 이리저리 궁리해 보지만 이미 '백약이 무효'인 지경이다.

성공한 지역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익숙함과 신선함, 평범함과 비범함, 지역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이 조화를 이룬다. 고유의 정체성(正體性)이 있어 개성이 강하지만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곳에서는 즐거운 호기심으로 지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놀라며,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며, 영감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자연적인 것과 계획된 것이 균형을 이루고,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전통을 존중한다.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자극과 흥분, 그리고 차분함과 고요함 사이에 적당한 공존이 있다. 질서정연한 것과 자유로움이 어우러지는 곳이다.

결국 성공적인 창조지역은 그 지역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유산과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서 나온다.

각 시행 주체가 저마다 충실하게 역할분담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인력을 육성·확보하고,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G

글 ·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창조지역사업 성공을 위한 4P

지금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창조지역사업이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다 철저하게 정책적 비전을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마케팅 믹스의 4P(product, price, promotion, place)에 빗대어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를 또 다른 4P(place, program, promotion, people)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Place 담을 그릇이 중요하니 시설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고려는 꼭 필요하다. 조성된 시설은 지역사회의 거점이자 장소마케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관계 주체들 간의 소통과 설득, 교육과 이해의 과정을 병행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성된 시설은 지역과 어울리는 수준 높은 예술성과 시각효과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Program 프로그램은 시설 못지않게 중요하다. 프로그램이 시설조성의 부대계획 수준으로 고려되어서는 희망이 없다. 프로그램은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며,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의 욕구와 수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일상적인 것과 특별한 행사의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야 하며 사회·문화·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 단계적으로 고루 도움이 되어야 한다.

Promotion 위의 두 가지를 살아 있게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판촉이다. 이는 홍보와 마케팅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결과를 널리 알려서 방문과 참여를 유도하고, 그 중요성을 공감시키며 나아가 대외적인 네트워킹의 단초를 제공하는 전방위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일회적이기보다는 타깃에 대한 입체적 소통채널이 확보되어야 한다.

People 모든 정책과 사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의 집합체인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민의 자존감과 행복을 우선하여 계획해야 하지만 이것이 배타성이나 권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는 행정과 주민, 그리고 전문가의 협업(協業)이 필요하며 외부와의 네트워킹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김상아 기자

오페라 〈나비부인〉 주역 소프라노 이현숙씨

"노래? 나는 즐긴다!"

오페라 〈나비부인〉은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 하나로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6월 24~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한국오페라단의 〈나비부인〉은 유럽 무대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최고의 버터플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현숙씨가 주인공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10여 년 동안 이탈리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를 공연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났다.

이번 서울 공연은 로마극장, 베로나 야외극장 등에서 호평을 받아온 연출가 마우리지오 디 마티아와 지휘자 조반니 바티스타 리곤이 참여한 작품이다. 이현숙씨는 이탈리아 나폴리 산카를로 극장의 오페라 〈나비부인〉에서도 주역인 초초상으로 캐스팅된 바 있다. 그는 〈나비부인〉뿐 아니라 〈마농레스코〉 〈일 트로바토레〉 〈가면무도회〉 〈나부코〉 등에서 주역으로 활약하며 우리나라보다 유럽 무대에서 더 유명하다.

이탈리아 피아첸차 주세페 니콜리니 국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음악아카데미 오페라과와 베르첼리 상악아카데미 오페라과를 졸업한 그는 현재 피아첸차 주세페 니콜리니 국립음악원 대학원 가곡 연주과정에 재학 중이기도 하다. 프란체스코 마리아 마르티니 기념 국제음악 콩쿠르, 비오티 발세시아 국제음악 콩쿠르 등 각종 콩쿠르에서 열 차례나 1위를 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

국제음악 콩쿠르서 열 차례나 1위

"이탈리아에 가자마자 페루자에서 어학코스를 밟았어요. 성악 레슨 이전에 언어를 마스터해야 연극적인 표현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콩쿠르에서 계속 1등을 한 것은 제가 대단한 승부욕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노래를 즐기자'는 쪽이었는데…. '유럽에서 내로라하는 가수들이 오니, 그들과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심정으로 임했는데 예상외의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는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는 동안 기차를 타고 밀라노에서 나폴리까지 샅샅이 누볐는데, 그때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오페라단

"〈나비부인〉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는 맑고 높은 편인데, 〈나비부인〉은 깊은 소리를 내야 하거든요. 처음 레슨을 받을 때 선생님께서 '소리를 낮게 내라'고 했는데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그러다 우연히 세 살 정도 된 아이가 '맘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우리말은 안으로 들어가는 반면 이탈리아어는 밖으로 내보내는 소리예요. '낮게'라는 의미가 깊은 소리를 내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나비부인〉은 깊고 풍부한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배역이에요. 2막에서는 40여 분 내내 노래를 해야 합니다."

오페라 〈나비부인〉은 일본 나가사키 항구를 배경으로 미군과 일본 여인의 사랑과 이별, 고통과 죽음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오페라를 보지 않은 사람도 이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 '어떤 개인 날'이나 '허밍 코러스' '꽃노래' 등은 익숙하다. 〈나비부인〉은 존 루터 롱의 소설을 미국의 흥행주 겸 각색가인 데이비드 벨라스코가 각색한 희곡을 다시 각색한 것이다.

미술공부하다 오빠 지도로 음대 진학

〈나비부인〉의 중심인물인 초초상 역은 소프라노라면 누구나 꿈꾸지만 그만큼 소화하기 어려운 배역이다. 이현숙씨가 출연했었던 여러 작품 중에서도 유난히 아끼는 배역이기도 하단다.

"열여덟 살 소녀이자 게이샤인 초초상은 어린 소녀와 성숙한 여인을 함께 표현해야 하는 배역이에요. 안개 낀 나가사키항으로 들어오는 배를 보면서 '그가 돌아오면 나를 무어라 부를까. 작은 각시라 부를까, 버터플라이라고 할까'라고 노래 부르는 순애보적인 사랑을 하는 여성이지요."

유럽 무대에서는 그의 노래를 듣고 '브라보'를 외치고, 우는 사람도 있어 가슴 뭉클했다고 한다. 그는 이탈리아 현지 언론으로부터 '소리가 부드럽고 심금을 울려 멀리까지 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표현력과 눈빛이 좋다는 평가다. 로시니 페스티벌에서 그의 무대를 본 비평가 알베르토 자우라는 "태어나서 이토록 부드러운 소리를 만난 적이 없다"며 극찬했다.

지금은 유럽에서 프리마돈나로 한발 한발 성장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는 노래를 좋아하지만, 미술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진로를 바꾸게 된 것은 오빠가 이탈리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였다.

그의 오빠는 바리톤 이재환(중앙대 성악과 교수)씨. 뮤지컬 〈명성황후〉에서 대원군 역을 맡아 대중에게도 친숙한 성악가다. 오빠가 그에게 "가곡을 한번 불러보라"고 시키더니 성악을 권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그는 노래를 좋아하긴 했지만, 성악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낙천적인 성격인 데다 한번 결정한 일은 무조건 밀고 나가는 편이에요. 그때부터 오빠로부터 성악 지도를 받아 음대에 진학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면 〈라보엠〉 공연

오빠는 성악, 언니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각자 자기 하는 일이 바빠 그가 콩쿠르에서 우승한 소식도 언론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을 때가 많다고 한다.

"한번은 오빠가 전화해서 '네가 콩쿠르에서 우승했다고 하는데, 상금은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는 콩쿠르 결과보다 '즐기면서 노래하는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다고 한다. 음악 감상과 영화 관람을 좋아하는 그는 노래를 하면 할수록 '센스'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밀라노 근교도시인 피아첸차에서 살고 있다. 이번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면 〈라보엠〉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성악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목을 단련해야 한다는 그. 그는 성실하게, 매일 매일 한 걸음씩 또 다른 '자신'(오페라의 배역)을 찾아가고 있다. G

글 · 천수림 (톱클래스 기자)

박태환이 지난 6월 19일 샌타클래라 국제그랑프리 수영대회 자유형 200미터에서 1위를 하고 시상대에서 관중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박태환, 신무기 돌핀킥으로 세계신 노린다

美 그랑프리서 1인자 펠프스 제치고 3관왕… 내달 상하이 세계선수권 청신호

'마린보이' 박태환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얼마 전 미국 샌타클래라 국제수영 그랑프리대회에서 '수영황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를 처음 제치며 3관왕에 올랐다. 주종목이 아닌 1백미터 자유형에서도 금을 목에 걸어 의미가 더하다. 박태환의 진화는 어디까지일까.

박태환(22·단국대)은 수영선수로서 거의 모든 것을 이뤘다. 2007 멜버른 세계선수권과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자유형 4백미터)을 땄고, 두 번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개를 걸었다.

기록경기인 수영에서 박태환에게 남은 도전 과제가 있다면 세계기록 경신이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서 끝난 국제그랑프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7월 24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세계선수권대회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박태환은 샌타클래라 그랑프리 자유형 4백미터에서 3분44초99로 1위를 했다. 본인이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웠던 개인 최고 기록(3분41초86)에 약간 뒤진다. 현 아시아기록은 중국의 쑨

양이 올해 자국 춘계선수권에서 세웠던 3분41초48이다. 올해 FINA(국제수영연맹) 공인 세계랭킹 1위 기록이기도 하다.

박태환은 아시안게임 때 물리쳤던 쑨양을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태환은 이번 그랑프리에서 현 기량을 1백퍼센트 발휘하지 않았다. 박태환을 지도하는 마이클 볼 코치는 제자에게 구간별 목표 기록을 주고 철저하게 그걸 지키도록 지시했다. 자유형 4백미터의 랩타임을 보면 박태환의 페이스가 일정했음을 알 수 있다.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올 세계랭킹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그만큼 현재의 실력이 탄탄하다는 뜻이다.

돌핀킥: 잠수 상태에서 두 다리를 붙이고 허리,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 아래위로 흔들며 발차기를 하는 동작. 물속은 물살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강하게 돌핀킥을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 잠영(潛泳) 가능 거리는 15미터이다. 초과하면 실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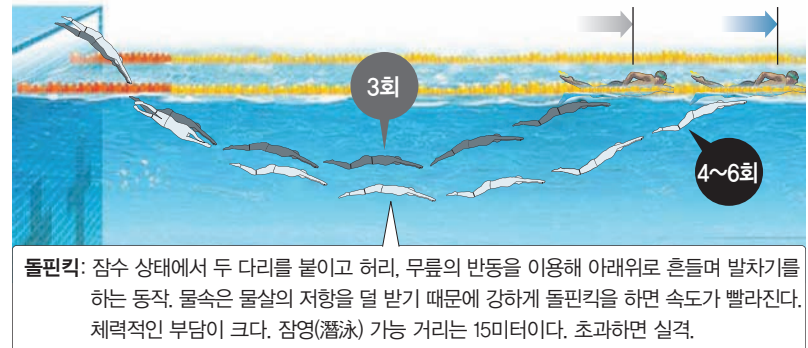
박태환은 레이스를 마친 후 별다른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고, 지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정확한 영법을 구사하면서 효율적으로 헤엄치는 모습에 미국 현지 중계진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돌핀킥 달인 펠프스 앞에서 돌핀킥 역영

박태환은 자유형 2백미터에서도 1위(1분45초92)를 차지했다. 본인이 가진 아시아기록(1분44초80)과 별 차이가 없었다. 자유형 2백미터와 4백미터의 마지막 50미터 스퍼트는 작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보다 각각 0.1초, 0.52초 빨랐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있는 힘을 쏟지 않았음에도 세계정상급 스피드를 보였다.

박태환은 스프린트 종목인 자유형 1백미터에서도 48초92로 들어와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49초61)를 따돌렸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우승하며 세웠던 한국기록(48초70)과 비슷했다.

세계신기록에 도전하는 박태환이 새롭게 장착한 무기는 돌핀킥(dolphin kick)이다. 돌핀킥은 잠수 상태에서 두 다리를 붙이고 허리,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 아래위로 흔들며 발차기를 하는 동작이다. 돌고래가 꼬리를 아래위로 흔드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물속에선 물살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강하게 돌핀킥을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 단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 규정상 잠영(潛泳) 가능 거리는 15미터이다.

돌핀킥은 스타트 신호음과 함께 물에 뛰어든 다음, 또 매 50미터 지점에서 턴을 하고 나서 구사한다. 박태환은 그동안 스타트 후엔 돌핀킥을 3회쯤 했는데, 최근 4~6회로 늘렸다. 잠영으로 전진하는 거리도 9~10미터에서 12미터쯤으로 늘어났다. 턴을 하고 나서 발로 벽을 밀어 추진력을 얻은 다음 구사하는 돌핀킥은 예년처럼 2회 안팎이다. 잠영 거리도 7~8미터 정도로 비슷하다.

돌핀킥의 세계 최고수는 마이클 펠프스다. 2004 아테네 올림픽 6관왕, 2008 베이징 올림픽 8관왕인 펠프스는 턴(turn)을 한 후에 물속 1미터 가까이 깊숙하게 내려갔다가 강력한 돌핀킥을 7~8회 하며 올라오는 영법을 구사한다. 잠영 거리는 12~13미터에 이른다.

마이클 볼 코치는 "펠프스와 비교하면 박태환의 돌핀킥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하지만 박태환의 돌핀킥이 발전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박태환은 2009 로마 세계선수권에서 자유형 2백미터·4백미터·1천5백미터에 출전했으나 모두 결선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른바 '로마의 충격'이었다.

자유형 2백·4백미터에 집중… 1백미터도 도전

박태환이 퇴보했다고 몰아붙이기엔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자유형 4백미터)과 은메달(자유형 2백미터)을 따며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올림픽을 마치고 나선 휴식이 부족했다. 박태환이 로마에서 못했다기보다 특히 올림픽 때 부진했던 외국 선수들이 분발했다고 봐야 더 공정하다.

로마에서 뼈아픈 실패를 맛본 박태환은 작년 초부터 마이클 볼 코치와 손을 잡고 새롭게 출발했다. 동기유발을 잘하고,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볼 코치의 지도법과 궁합이 잘 맞았다. 박태환은 작년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잃었던 명예를 되찾았다. 이번 세계선수권에선 세계정상 복귀를 노린다. 일단 자유형 2백미터와 4백미터에 집중하면서 자유형 1백미터에도 부담없이 도전장을 냈다.

'마린보이'가 다시 많은 박수를 받기를 기대해 본다. G

글 · 성진혁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가족이 없어 늘 외로웠다"는 정소향씨는 "훗날 가은이에게 행복한 가족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휴먼다큐 사랑〉 주인공 '가은이 엄마' 정소향씨

"꼭 자립해서 우리 딸 잘 키울 겁니다"

지난 5월 6일 MBC 〈휴먼다큐 사랑-엄마의 고백〉 편에 출연해 많은 시청자를 울렸던 '가은이 엄마' 정소향씨. 열아홉 살의 나이에 교도소에서 가은이를 출산, 다섯 평 남짓한 교도소에서 가은이와의 생활을 담았던 프로그램은 방영 후 내내 화제가 됐다. 작년 12월 가석방 뒤 가은(2)이를 데리고 세상 앞에 홀로서기를 시작한 스물한 살 정소향씨를 만났다.

지난 6월 14일 오후 동두천버스터미널 안의 한 도넛 전문점. 주문을 하려는 여고생들이 앳된 얼굴의 직원을 보며 묻는다. "혹시, '가은이 엄마' 아니세요?" 손님들의 질문에 직원은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는다.

직원은 다름 아닌 MBC 〈휴먼다큐 사랑-엄마의 고백〉 편의 주인공이었던 가은 엄마 정소향씨, 정씨는 "자신을 알아봐 주고 응원해 주는 손님들 덕분에 다시금 힘이 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일하는 내내 상냥하고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대했다. '아픈 과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소향씨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낯설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으로 갔다. 그리고 입양됐으나 초등학교 다니던 무렵 양부모의 이혼으로 그녀는 또다시 방황의 길로 접어들어야 했다.

고아로 자라 교도소에서 출산 "아픈 과거는 안녕"

집을 나와 열 곳이 넘는 청소년 보호시설과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던 중 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녀는 임신한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됐고 2009년 7월 28일 청주교도소에 딸 가은이를 낳았다.

방송에선 엄마가 된 그녀의 고백과 함께 딸 가은이와의 교도소

정씨는 지난 5월 아르바이트하던 매장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됐다.

생활이 그려졌다. 방송 당시 교도소 감옥 배식구에 고개를 내민 돌쟁이 가은이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한때 입양아였던 자신의 아픔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입양을 포기한 그녀의 선택에 많은 사람이 응원을 보냈다.

"사실 방송이 나가면 행여 저를 '미혼모'라고, 우리 가은이를 '미혼모의 딸'이라고 손가락질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많은 분이 용기 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르바이트직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는 것 외에 정작 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다. 방영 후 후원 계좌도 개설됐지만 "생활이 달라질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부족해도 딸에게 좋은 모습 보여 주고 싶어요"

그녀는 출소 후부터 줄곧 미혼모 보호시설인 '경기도 천사의 집'(이하 천사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가은이는 그녀가 일하는 매장 근처 어린이집의 종일반에 다니고 있다.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정씨 모녀는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그녀는 "엄마의 사정을 아는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은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그저 고맙기만 하다"며 웃었다.

'천사의 집' 생활이 이젠 익숙해졌다지만 그녀는 요즘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다. 가은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두 평 남짓한 방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차츰 자립을 해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원래 미혼모 시설은 출산 전후로 입소해 아이가 두 돌이 되면 자립해 퇴소해요. 저는 출감 후 입소한 경우라 가은이가 이미 17개월이었죠. 다음 달이면 두 돌이 되는데, '천사의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루빨리 자립하고 싶어요. 특히 주말엔 온종일 '천사의 집'에서 생활하는데 놀 공간이 마땅히 없으니 가은이가 회의실 등을 돌아다니며 놀아요. 가은이에게도 미안하고 '천사의 집' 식구들에게도 미안하죠."

가은이와의 자립을 위해 월급 1백여만원 중 40퍼센트를 저축한다는 그녀는 "가은이에게만큼은 부족하거나 쫓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가은이에겐 돌 사진 한 장 못 찍어 줬네요. 다가오는 두 돌 때는 가까운 물놀이장이라도 가서 사진 많이 찍어 주고 싶어요."

최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선 '미혼모 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혼모 새 이름 짓기' 공모전을 열어 '두리모'라는 이름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두리모'는 '둥근'이라는 의미와 숫자 '둘'을 뜻하는 방언 '둘레'라는 뜻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아빠와 엄마 두 사람 몫을 해야 하는 미혼모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도록 강하고 둥근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다. 정씨에게 '두리모'의 명칭과 그 뜻에 대해 말해 주니 "반가운 뉴스"라며 반겼다.

이어 그녀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됐지만, 내 딸에게만큼은 '미혼모의 딸'이라는 수식어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서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좋은 말만 듣고 자라게 해 주고 싶은 엄마 마음처럼 사회도 우리 모녀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과 사진·박근희 기자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보호시설 입소 외에 보육료·양육비 등 지원

'두리모' 관련 정책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지원책에 차이가 있다. 정소향씨처럼 국고 보조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을 경우 ▲'한부모가족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국고 보조 보호시설 입소자가 아닌 경우 지원 범위가 좀 더 다양하다.

우선 미혼모나 미혼부자 발생 가구는 ▲'초기 위기 지원'이 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전국 17개소 지원센터 등에서 임신 초기 상담에서부터 병원비 및 생필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단, 병원비 지원의 경우 기초수급권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백30퍼센트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 양육비 월 5만원도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 최저생계비 1백50퍼센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 양육비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또는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등도 있다. 이 밖에 소득 조사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다.

문의·위드맘 withmom.mogef.go.kr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02-363-4750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서 태권도 봉사 '마태봉봉'팀

4천 관중 앞에서 태권도 공연 '짜릿'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의 '태권도 봉사'는 국가 간 교류, 문화발전은 물론 태권도를 통한 한류 조성에 이바지하며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봉사단을 통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태권도 봉사'를 다녀온 '마태봉봉'팀은 현지서 44일 동안 '태권도 코리아' 이미지를 깊숙이 심어 줬다.

"처음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을 때 아프리카 외딴섬에서도 태권도를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마태봉봉'의 신효림(24·경원대 태권도학과)씨의 말이다. 신씨는 "태권도 전공자로서 태권도 해외봉사는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자칭 '마태봉봉'팀은 '마다가스카르 태권도 봉사팀'의 준말로 신씨를 비롯해 유한철(27·단국대 태권도학과), 하성욱(24·경민대 태권도외교학과 졸), 김정아(22·나사렛대 간호학과), 곽미성(23·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심효림씨 등 5인이 한 조다. 이들은 작년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44일간 아프리카의 외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가 태권도 전파에 힘썼다.

팀장이었던 유한철씨는 품새 지도를, 하성욱씨는 시범단 교육을, 신효림씨는 경기 지도를 맡았다. 여기에 김정아씨가 '위생병' 역할을, 곽미성씨가 통역을 담당했다. 태권도평화봉사단원 모집을 통해 선발된 후 일정 기간 국내 연수를 거쳐 그야말로 '랜덤'으로 차출된 멤버였지만 그들은 "드림팀이었다"고 말했다. 44일간 그들의 팀워크는 현지 봉사활동에서 시너지가 돼 주었다.

"현지의 상황을 파악해 보니 마다가스카르는 부유층 위주로 태권도가 보급돼 있었지만,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했어요. 사범들마저도 잘못된 품새를 가르치고 있었죠.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박근희 기자

마다가스카르로 태권도 봉사를 다녀온 '마태봉봉'팀. 이들이 다녀간 후 마다가스카르는 태권도 열풍이 일었다.

'태권청년' 5명이 한 조 이뤄 44일간 봉사

44일 동안 태권도를 '짧고 굵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팀원들은 마음이 바빠졌다. 7월 13일 입국해 14일부터 바로 교육에 들어갔다. 그리고 8월 20일 현지 교육생들과 함께 한 '태권도 공연'까지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최선의 봉사활동'은 현지인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려 보여서 큰 기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현지인들도 어딜 가나 알아봐 주시고, 저희가 지나가면 '코리아' '태권도'라는 말을 하며 알아봐 주셨어요. 무엇보다 출국하기 나흘 전에 했던 '태권도 공연'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 팀장의 말에 팀원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한다'는 듯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8월 20일 '타이거스 나이트'의 '태권도 공연'은 그들이 40여 일간 펼친 태권도 봉사활동의 성적표나 다름없었다. '타이거스 나이트'는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무도행사로 그동안 1부에서는 마다가스카르 현지 무술 등이, 2부는 일본의 아이기도와 브라질의 카포에라, '태보'(태권도와 복싱, 에어로빅을 합쳐 만든 운동) 같은 외국 무예 공연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타이거스 나이트' 2부의 메인이벤트는 '태권도 공

태권도평화봉사재단

마태봉봉 팀원들은 "작은 섬나라에까지 태권도가 보급돼 있어 놀라웠지만 방문했을 당시 현지 마스터들조차 제대로 된 태권도 교육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연'이 장식했다. 태권도 봉사단 파견 후 태권도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공연은 마태봉봉팀과 현지 마스터 포함 28명의 태권도 교육생이 함께 했다.

4천 관객 앞에서의 태권도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시범단 교육을 맡았던 하성욱씨는 "특히 봉사단 파견 이전의 태권도에선 느낄 수 없었던 절도 있는 동작과 '제식'까지 갖춘 태권도 교육생들의 모습에 현지인들이 많이 신기해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고위 관료들도 공연을 보고 "감동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해 왔다.

전문강사 파견… 올바른 태권도 보급에 기여

공연은 현지 7개의 신문 매체를 비롯해 공중파 뉴스에 보도됐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끈 마태봉봉팀은 현지 광고에도 출연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태권도 인구도 늘었다. 마태봉봉팀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태권도평화봉사재단에서 수여하는 '우수팀'에 선정되기도 했다.

팀원들은 입을 모아 "마다가스카르에서의 44일은 그 어디에서도 느껴 볼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신효림씨와 하성욱씨는 오는 7기 봉사단에 참여해 다시 한 번 태권도 해외봉사를 떠날 계획이다.

마태봉봉팀의 수장이었던 유한철 팀장은 "태권도 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로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봉사"라면서 "특히 태권도재단에서 진행하는 '태권도평화봉사'는 태권도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를 파견하고 있어 태권도를 보다 전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다 많은 분이 태권도 봉사에 참여해 태권도 정신과 한국 문화를 알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G

글·박근희 기자

태권도평화봉사단 파견사업

지난 한 해 3백여명이 40여개국서 봉사

태권도평화봉사재단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 1백97회원국을 대상으로 태권도 인재를 파견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만 3백여 명의 단원이 40여개국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2008년 하계 봉사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백여개국에 5백여 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했다.

별도 모집기간을 통해 봉사단원을 선발하며, 선발된 단원은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거쳐 해외로 파견된다. 현지에선 태권도 문화와 정신, 태권도 보급, 파견 국가 봉사활동,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 활동 등을 펼친다.

문의 ☎02-743-5964, 5934

나자로의 집 ·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장애인 잠실야구장 나들이

생애 첫 야구관람… "홈런 친 기분입니다"

지난 6월 18일 지구촌사회복지재단(용인시 수지구)과 나자로의 집(관악구 신림동) 소속 장애인과 보호자 등 60여 명이 서울 잠실야구장을 찾았다. 토요일인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야구장은 처음인데 재밌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관람 중간에 나오는 음악이 너무 신나요. 춤도 췄어요."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신승용(22)씨와 고세윤(26)씨는 한껏 들떠 있었다. 생애 첫 야구 관람이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프로야구를 직접 관람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해 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외계층에 대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이날 잠실야구장을 찾아 경기 마지막까지 장애인들과 함께했다.

경기 시작 1시간여를 앞두고 찾아간 잠실 야구경기장 LG 1루 출입문 옆 임시 사무실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줄 간식을 나누어 담느라 분주했다. 무더운 날씨로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오후 4시, 잠실경기장 중앙문 근처 마당에 '나자로의 집' 장애인과 인솔자 25명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대형버스를 타고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박선규 차관 부부가 따뜻한 미소로 이들을 맞았다.

나자로의 집 김용주 시설장은 "원생들 대부분이 보호자 없이 이동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이라며 "문화부에서 차량과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줘 불편 없이 올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나자로의 집 원생들은 야외활동이 1년에 두 번 정도가 고작이다. 1991년부터 정신지체장애로 취업과 자립이 어려운 이들이 간단한 봉입작업부터 DM사업까지 직업재활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출 한 번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정신지체로 야외활동 1년에 2~4회뿐

그런 어려움 중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이다. 김 시설장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며 "장애인을 나와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 봐 주시라"고 당부했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장애인 11명, 보호자 7명, 교사 10명 총 25명도 곧이어 도착했다. 박 차관 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문화부 관계자들과 원생들이 문화부에서 마련한 현수막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신승용(왼쪽)씨와 김성희팀장이 V자를 그려보이고 있다.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현장에서 원생들에게 모자와 티셔츠 등을 선물했다.

원생과 보호자, 인솔교사들은 경기관람을 위해 지정된 LG블루석으로 이동했다.

박 차관은 이곳에서 이날 행사를 위해 KBO, LG 등에서 특별 기부한 야구공, 티셔츠, 모자, 응원도구 등 선물을 원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박 차관은 원생들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지난해 추석 나자로의 집을 찾은 박 차관이 원생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원생들은 '연극 관람'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원생들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지난 설에도 박 차관은 나자로의 집을 찾았다. 당시 원생들은 연극 관람을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롤링페이퍼에 담아 선물로 전하기도 했다.

덩실덩실 춤추며 신명나는 응원 펼쳐

이날 경기는 야구장을 처음 찾은 원생들을 반기기라도 하듯 원생들이 응원한 LG 트윈스가 5회 말부터 큰 점수 차이로 앞질러 나갔다. 원생들은 응원 풍선과 응원 플래카드를 들고 관중과 한마음 한뜻이 돼 신명나는 응원을 펼쳤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 김성희 팀장은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다"며 "응원팀이 점수를 내 폭죽이 터지거나 음악이 나올 때마다 덩실덩실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는 등 정말 즐기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20~40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이 제과·제빵이나 박스 조립 등의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이곳 역시 원생들과의 야외활동은 한 해 네 번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김 팀장은 "마음이 순수한 원생들이 음악이 있는 곳이나 놀이공원 등을 좋아해 나가자고 조른다"며 "이렇게 마음을 다해 즐기고 오면 평소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 작업의 효율이 오른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룰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어려워하는 원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평소 야구, 축구 경기를 TV로 즐겨 본다"는 나자로의 집 이정일(36)씨는 "야구 선수 중에는 이종범 선수를 좋아한다"며 "집에서 TV로만 보다 실제 야구장에서 보니 더욱 실감 나고,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비교적 조용히 응원하던 나자로의 집 변일석(42)씨 역시 "사람들과 응원하는 분위기가 좋다"면서 "다음에는 야구경기 규칙을 더 공부해서 오겠다"며 수줍게 웃었다.

이날 경기선 LG 트윈스가 SK 와이번스에 8대5로 역전승을 거둬, 원생들에게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었다. 장애인들은 경기장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보다 더욱 활기차고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다. G

글과 사진·김지윤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나자로의 집 www.nazaro.or.kr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다. 1991년 박민정씨가 설립해 지적장애인들이 사회생활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지적장애인들에게 교육프로그램과 현장학습,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DM(Direct Mail Advertising)사업이라는 우편 마케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촌사회복지재단 www.jiguchonwelfare.or.kr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지구촌교회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재단으로 노인복지센터, 보호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노동 능력에 따라 일할 기회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현재 '뜨랑슈아'와 '행복한 일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공감나누미' 대학생들의 즐거운 수다

"우리 세대는 봉사로 세상과 소통"

G20세대는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세대가 아니다.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가면서도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향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아끼지 않는다. 이들 G20세대가 생각하는 봉사활동과 봉사정신은 무엇일까. 그들이 가진 그들만의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 보자.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대학생 인턴 포털사이트 '브레인리그' 사무실에서 젊은이들의 청명한 웃음소리와 함께 토론이 시작됐다. '봉사활동과 G20세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복권위원회가 운영하는 '행복공감나누미'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복권기금의 공익성을 알리기 위해 결성된 행복공감나누미 3기에 참여한 이들 대학생은 지난 5월 30일 발대식을 가진 뒤 노인방문 봉사, 농촌 봉사, 문화재 보수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토론을 하는 동안 이들의 활기찬 모습만큼이나 꾸밈이 없는 진실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 배워

박상만 (숭실대 경제학과 2년)

"우리 행복공감나누미들에게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대부분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온 학생들이란 점과 봉사활동을 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세대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하게 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세대는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배워 왔고, 봉사활동을 하고 자란 세대거든요.

저는 대학생이 된 뒤 행복한 상상을 하며 샀던 복권의 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행복공감나누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키워 온 봉사하는 마음이 좀 더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내 삶 속에 봉사정신을 넣고 싶어

이제연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3년)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해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 덕분에 저 역시 다양한 나라에서 2천여 시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제3국 아이들을 보며 한국이 살기에 편하고 좋다는 생각을 했죠. 동시에 지금의 살기 좋음과 편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세대는 방향 설정을 하고 개척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했어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20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그곳을 향해 개척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예전의 봉사와 지금의 봉사는 좀 달라진 듯해요. 예전의 봉사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하는 활동이었다면 요즘 저희 세대는 단순한 듯 당연하게 자신의 삶 속에 봉사활동과 봉사정신을 넣고 싶어합니다."

특별한 공감과 끌림이 봉사의 매력

홍경선 (이화여자대학원 법학과 1년)

"한편으론 기업에서 다양한 스펙과 글로벌 마인드를 원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스펙 쌓기'로 이용하는 대학생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볼 때 조금은 허전한 마음도 들지만, 그런 모습들이 저희 시대의 자화상 중 일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봉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주고, 봉사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며 무언가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봉사가 주는 특별한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특별한 공감과 끌림 덕분에 저는 2010년 11월에 행복공감나누미 1기를 마치고도 계속 참여해 3기인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어요."

할머니 발 닦아드리다 함께 울어

박수현 (성신여대 법학과 3년)

"저 역시 봉사가 주는 특별한 공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한번은 어르신들 발 마사지 봉사활동을 할 때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처음 보는 젊은 사람에게 발 맡기기가 힘들다며 발을 안 주시다가 다른

행복공감나누미 대학생들이 서울 강남구 '브레인리그' 사무실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분들의 모습을 보고 어렵게 제게 발을 맡기셨어요.

할머니의 발에 물을 한번 끼얹고 발을 잡은 상태에서 할머니 얼굴을 올려다본 순간 할머니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을 보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할머니도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렇게 잠시 눈물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졌고, 할머니 발을 마사지해 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이들이 누구냐며 쓰다듬어 주셔서 가슴 벅참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열정은 자신의 길을 찾는 원동력

박경수 (인하대 수학과 3년)

"여기 계신 분들과 비교한다면 전 정말 평범합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하던 봉사활동 20시간을 '의무'로 생각해 '시간채우기'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나자 많은 사람이 말하는 봉사활동을 통한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공감나누미와 함께하게 됐죠.

한번은 남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공알리미' 봉사활동을 할 때였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무뚝뚝하다 못해 무섭게 보이기까지 했던 남학생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대학에서 배울 전공에 대해 물어보는 순수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저희 세대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세대는 찰흙과도 같아요. 어떻게 주무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성실하게 하지 못할 때는 굳어버린 찰흙 같지만, 마음을 다잡고 기꺼운 마음으로 찰흙을 주무르기 시작하니 움직이는 대로 모양을 갖출 수 있었어요. 조금 더 다듬고 연마하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 한국이란 환경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가진 열정입니다. 열정이야말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전 봉사가 무엇이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따지기보다 먼저 '해 볼 것'을 추천해요. 봉사야말로 저희 세대가 세상 사람과 소통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에요."

봉사는 자신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

이들과 토론하는 동안 앞에서 소개한 의견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이제연 학생의 마지막 말은 'G20세대'의 다양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다.

"저희 G20세대가 세계화와 도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저희 세대 모두가 지금 당장 세계를 향해 도전하진 않아요. 자신을 향한 도전을 먼저 하고 있죠. 그게 저희에게는 봉사인 듯해요. 우리 세대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우아한 아름다움을 찾았으면 해요."

행복공감나누미와 함께 토론을 하며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한국 청년들은 건강하며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들 개개인이 느끼는 봉사정신이 각자 자신의 품 안팎에서 따뜻함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G

글과 사진 · 안시준 (연세대 경영학과 4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들

'그린카드' 잘만 쓰면 연 최대 20만원 적립

2011년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하반기에는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여럿 있다. 세금이나 근무제도 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도 다수다. 7월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성형외과가 북적이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는 예년과 매우 다른 풍경이다. 성형수술은 주로 한여름이나 겨울에 많이 한다. 방학과 휴가를 이용해 수술을 하려는 수요가 이 때 몰리기 때문이다.

올 여름 성형외과의 때 이른 '성수기'는 세금과 관련이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수술비가 최대 10퍼센트 오르는 것이다. 이왕 수술을 할 계획이라면 7월 이전에 해야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7월부터 바뀌는 세금이나 근로제도 등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생활에 유용할 것이다.

성형수술·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부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의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의사와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이 포함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상의 수산동물의 진료비는 세금이 면제된다.

조선 DB

오는 7월 1일부터 애완동물의 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학교와 학원이 제공하는 일부 교육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상의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비가 그 대상이다. 다만 자동차학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변화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바뀐다. 현행법상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은 각 사업장의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들 업종도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각 사업장 매출을 합한 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연간 과세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일반과세를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농어업의 경우 연간 매출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7천5백만원 이상 사업자 등이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같은 부가가치세라도 세율에서 차이가 난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 세율이 1.5~4퍼센트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반과세는 10퍼센트의 고율을 적용받는다.

주 40시간 근무제 사업장 확대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오는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30만 사업장의 2백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일러스트·박상훈

주 40시간 근무제라고 해서 주 5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안에서 주 4일제, 주 5일제, 주 6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연장근로도 허용된다. 주 40시간 도입 후 3년까지는 주 16시간, 3년 이후에는 12시간 한도 안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휴가제도도 바뀐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0일이고 1년 추가될 때마다 1일씩 늘어나던 것에서 1년 만근 시 15일, 2년 추가 시마다 1일씩 연장된다. 가령 5년을 근무하면 이전에는 연차휴가가 15일이었지만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에는 17일이 된다.

그린카드 일제 실시로 녹색소비문화 확산

녹색소비를 하면 '그린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제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린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 수도 사용량을 감축하면 제공하던 '탄소포인트'는 기존 1만~2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확대한다.

그린카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1~2퍼센트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적립된 포인트는 그린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휴양림, 국립공원, 리조트, 문화시설 등 전국 곳곳의 공공시설 사용료나 주차료도 할인해 준다. 그린카드로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연간 20만원 상당에 이른다.

그린카드가 활성화되면 가정 부문 3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2백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수노조 전면 실시

복수노조가 7월 1일부터 허용된다. 말 그대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한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이 확대되고 근로생활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복수노조제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해 한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가지의 단체협약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G

글·변형주 기자

일제강점기 최초의 방송 다룬 〈라디오데이즈〉

그때도 막장 드라마… 실제 기생 출연도

2008년에 개봉된 영화 〈라디오데이즈〉(감독 하기호)는 1927년 첫 전파를 탄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인 경성방송국을 배경으로 벌어진 여러 가지 근대적 풍경들을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이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 짓눌리지 않고 재기발랄한 시선으로 당시를 재현하고, 독립운동과 민중의 고단한 삶 등을 담아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방송이 시작된 것은 언제일까? 우리나라에서 전파를 타고 최초로 방송이 시작된 날은 1927년 2월 16일이다. 1896년 마르코니가 무선통신기술을 발명한 후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마이크로폰이 개발되고 1906년 신호를 증폭하고 전송하는 진공관이 발명되면서 라디오는 인류에게 최초로 다가왔다.

세계 최초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것은 1920년 1월 미국에서였다. 이후 라디오 방송은 기술 개발을 통해 급격히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세계 최초 라디오 방송 이후 우리나라에 라디오 방송국이 생기기까지 7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 라디오 열풍이 얼마나 거셌는지 짐작게 한다.

일러스트·신용호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은 경성방송국이다. 호출부호는 JODK. 식민지였던 관계로 일본의 호출부호 JO에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이어 4번째 개국된 방송국이었기에 D를 부호에 넣어 JODK를 썼다. 건물은 정동 1번지에 있었다.

재기발랄한 시선으로 1920~30년대 재현

2008년에 개봉된 영화 〈라디오데이즈〉(감독 하기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인 경성방송국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근대적 풍경들을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이다.

영화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 짓눌리지 않고 21세기적 재기발랄한 시선으로 당시를 재현하고 그러면서도 독립운동과 민중의 고단한 삶 등을 담고 있다.

영화는 1927년 일본어 위주 방송으로 시작한 경성방송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구와 열망 끝에 1933년 4월 20일 제1방송은 일본어, 제2방송은 한국어로 분리한 이후 한국어 방송을 담당한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한국어 방송 개시는 한반도의 라디오 보급률을 엄청나게 신장시켰다.

1927년 경성방송국 개국 당시 전국에 등록된 라디오 수가 1천4백40대에 불과하던 것이 한국어 방송을 시작한 1933년에는 2만9천3백20대로 늘어났고 1937년에는 10만 대로 증가하였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적 곤핍함과 당시 물가로 라디오가 오늘날 3D TV보다 더 비쌌던 것을 감안한다면 라디오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던 것이다.

초창기 라디오의 편성은 단순했다. 뉴스, 만담, 강연, 소설낭독, 외국어 강좌, 국악, 기악연주, 라디오 연극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뉴스는 따로 기자가 없고 총독부가 전하는 것을 그대로 읽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용의 대부분이 일제 선전이거나 여차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었다.

정기 뉴스시각인 오후 3시30분과 저녁 7시에 뉴스가 시작되어도 내용이 없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종종 벌어지곤 했다.

조선DB

영화 〈라디오데이즈〉는 일제강점기 방송국의 일상을 코믹하게 표현했다.

영화에서도 방송 전반을 맡고 있던 로이드 박(류승범 분)이 이와 비슷한 보도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 영화의 첫 장면에서 수탉을 데려와 아침을 알리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1928년 새해에 꾀꼬리 울음소리를 내보겠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실제 꾀꼬리를 가져오지만 꾀꼬리가 울지 않아 무음방송을 30분간 하기도 하였고 1929년 새해에는 실제로 수탉을 데려와 오전 7시에 울게 하기도 하였다.

정기 뉴스시간에 "오늘은 뉴스가 없습니다"

라디오의 출연진은, 영화에서는 명월이란 기생이 고정출연하는데, 실제로 기생들이 많이 출연했다. 생방송이다 보니 출연하는 기생이 너무 긴장하여 NG를 내고는 연출자를 향해 '선생님 죄송해요'라고 사과하는 소리가 그대로 방송을 타 청취자를 웃게 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화의 주인공 격인 로이드 박은 어떤 사람을 표현한 것일까?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PD는 최승일이다. 최승일은 세계적인 무용가인 최승희의 오빠로 배재고보를 나와 니혼대학 미학과에서 수학하고 한국에 돌아와 신극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초창기 라디오 드라마는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고 기존의 연극대본을 읽어주는 식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점차 발전하여 1933년 무렵부터는 나름 효과음향도 넣고 배우도 역할을 분리해 진지하게 연기에 몰입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영화에서 독립운동가 K(이종혁 분)가 라디오에서 '의문'을 담당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의문이 바로 효과음향이다.

영화에 나오는 라디오 드라마 '사랑의 불꽃'과 비슷한 형태의 라디오 드라마는 작가 김희창이 만든 '라디오플레이미팅'의 회원들이 주축이 된 드라마 〈노차부〉였다. 이 드라마 출연진은 복혜숙, 김용규, 이운방 등 당시 연극 무대에서 이름 있는 배우들이었다.

당시 라디오 드라마는 요즘 시청률 높은 TV 드라마 이상으로 인기가 대단해서 라디오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틀어주는 상점 앞에 인산인해로 모여 경찰이 이를 단속하러 나오기까지 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드라마를 함께 청취하던 장면은 실제로 벌어졌던 모습인 것이다.

드라마란 것이 대중에 어필하는 것이 필수이다 보니 1933년 10월 1일자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라디오 드라마 작가 이석훈은 대중에게 아부하기 위해 '에로와 그로'(에로틱과 그로테스크)를 섞어 넣어야만 한다는 한탄을 한다.

연극대본 읽어주다 점차 배우들이 연기

1930년대 라디오 드라마도 요즘처럼 대중의 입맛에 맞게 점점 막장 드라마로 가는 일이 많았던 듯하다. 영화 속에서처럼 1930년대 대중은 라디오 드라마에 울고 웃으며, 드라마에 나온 배우의 팬이 되기도 하는 등 새로운 대중문화를 만들어갔다.

이러한 라디오의 인기로 또 다른 방송국이 생기기도 하였다. 영화 속에서 독립운동을 도운 죄로 감방에 호송되던 로이드 박이 노 작가(김뢰하 분)에게 부산에도 방송국이 생겼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경성방송국의 인기에 힘입어 1935년 부산에도 방송국이 개국하였다.

1930년대 라디오 방송은 태생적으로 일제의 압박을 받아야 하는 굴레가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 민중의 애환을 얼마만큼은 위로하고 또 새로운 대중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라디오 방송은 1930년대 후반 일제가 중일전쟁에 나서면서 점차로 문화적 기운은 사라지고 철저히 군국주의를 선전하는 방송으로 전락해 갔다. G

글 · 김정미 (시나리오 작가)

아들 부대서 꽃바구니가 왔네~

PX 통한 주문판매 가능… 선글라스 등 1백여 품목

일러스트·유현호

#1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근무하는 김 병장. 지난해 여름 폭염 속에서 강도 높은 훈련과 작전을 완수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 눈의 피로와 집중력, 체력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올해는 일찍 찾아온 더위에도 충성마트에서 산 '멋들어진 선글라스'를 끼고 나서니 눈의 피로감도 줄고 집중력도 몰라보게 높아졌다.

#2 경기도 연천군에서 근무하는 이 상병은 최근 충성마트(PX)에서 휴대용 멀티 공구세트(멀티 툴 세트)를 샀다. 그동안 크고 작은 훈련 중에 여러 가지 공구들을 바로바로 쓸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가져다 쓰는 것이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그런 불편이 싹 사라졌다.

#3 근무지가 강원도 양구군인 최 일병. 지난해 홀로된 어머니만 생각하면 근심이 는다는 그는 지난 4월 어머니 생신에 찾아뵙지 못하고 변변한 선물도 못 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최 일병은 지난 5월 어버이날에는 부대 내 충성마트에서 주문을 해 어머니께 평생 처음 꽃바구니를 선물했다. "군에 있으면서 뭐 하러 이런 것을 보냈느냐"고 하시면서도 대견해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전화로 들으며 최 일병은 잠시나마 걱정을 덜었다.

국군복지단이 지난 5월부터 전국 2천5백여개의 육·해·공군 마트(충성클럽·PX·BX)에서 주문식 판매를 시작했다.

주문식 판매는 지난해 11월 품목·업체 선정 공고를 통해 참여한 많은 업체 중에서 10여개 업체 1백12개 품목을 엄선했다. 투명하고 꼼꼼한 기업 심사를 거쳐 시중 가격보다 최소 20퍼센트 이상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

휴대용 멀티공구, 선글라스, 가방, 꽃 배달서비스 등이 먼저 주문판매되기 시작했다. 스팀·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도 조만간 판매한다. 주문판매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선 부대 마트에서 상품 카탈로그를 보고 장병들이 상품을 정해 결제하고 배송 희망지만 적으면 업체에서 곧바로 배송지로 배달해 준다.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인터넷 온라인과 택배 주문 방식에 익숙한 신세대 병사와 간부들에게는 그야말로 간편한 판매 방식"이라면서 "군 생활을 하는 장병들의 '작지만 소중한' 복지 증진은 물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병영의 변화"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선글라스는 무더위 속에서 경계 근무를 해야 하는 일선 장병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여름 폭염주의보 속에서 경계 근무를 해야 하는 장병들은 햇볕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

시중보다 20퍼센트 이상 저렴…곧 가전제품도 취급

자칫 근무자의 피로가 쌓여 집중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젠 선글라스가 주문판매되면서 이를 쓰고 근무하는 헌병이나 경계근무자, 운전병들은 시력을 보호하고 피로도 덜 것으로 보인다.

국군복지단에 따르면 병사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간부가 아닌 병사들의 경우 건방져 보인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장병들이 피로를 더는 것이 경계 근무의 질을 높인다는 실질적인 판단에 따라 판매에 들어갔다.

또 주문판매는 마트에 상품을 쌓아놓지 않고 주문이 있을 때만 배송 희망지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조금은 열악하고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판매확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G

글·김종원 (국방일보 기자)

변신구역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스쿨존에서는 꼭 시속 30km 미만!

〈우리 역사 속 부정부패 스캔들〉

뒤끝 좋은 부정부패 없더라

변광석 지음
역사의아침 펴냄·9천원

이 책 속에는 다양한 인간군상이 등장한다. 고려말의 권신(權臣) 이인임·염흥방·지윤 등은 종을 풀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물푸레나무(수정목)로 곤장질한 뒤 그들의 땅을 강탈하곤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사람들은 '수정목 공문(水精木 公文)'이라며 치를 떨었다.

권력실세들의 부정부패는 조선시대로도 이어졌다. 세종 시절 병조판서 조말생은 노비소송사건을 처리하면서 뇌물을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태종의 지신사(비서실장)를 지냈고, 왕실과 인척지간이었다. 사헌부의 잇따른 탄핵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그를 끝내 감쌌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세운 박원종·성희안·유순정도 사치와 탐욕을 일삼았다. 사관(史官)은 이들을 두고 "뇌물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남에게 주는 것도 마땅함을 지나쳤다"(박원종), "뇌물을 좋아하여… 첨사나 만호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뇌물이 많고 적음을 보아 제수했고"(유순정), "사치만 믿고 의리를 멸시하여 사는 집은 그 사치를 극도로 하고"(성희안)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조선 숙종 때 역관 장형은 중국을 드나들며 부(富)를 쌓았고, 이를 남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해 딸을 왕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딸이 바로 장희빈이다. 조선시대판 정경유착이라고나 할까.

공직비리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간군상

그런가 하면 직접 축재(蓄財)에 나선 임금도 있었다. 고려의 충혜왕은 궁내에 비단직조소를 짓고 비단을 짜게 하여,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백성들로부터는 노비와 땅, 말을 빼앗아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에 대해 사관은 "음란하고 방종하여 무도하면서도 재리(財利)를 계산하는 데는 세밀한 것까지도 다 따졌다"고 기록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원나라의 간섭 속에서 왕위를 지키기 위한 통치자금으로 쓰였다. 하지만 그는 원나라 승상으로부터 '양아치'라는 소리까지 듣던 끝에 왕위에서 쫓겨나 귀양길에 죽고 말았다.

구한말 고종 황제는 매관매직을 일삼았는데, 갑오개혁 이후 관찰사 자리는 10만~20만 냥이었다. 전남 해안의 군수 자리도 5만 냥은 주어야 했다. 황제가 이 모양이었으니 다른 사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고종의 조카로 외부대신 등을 지낸 이지용은 1904년 러일전쟁의 와중에 일제가 요구한 한일의정서를 받아들이면서 1만원을 받았다. 시대에 따라 부패의 모습이 다르고 등장하는 사람도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다. 부정부패는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병(病)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글·배진영 기자

새로 나온 책

로마제국과 유럽의 탄생

피터 히더 지음 | 다른세상 펴냄·3만3천원

고대 서양세계의 패자(覇者)였던 로마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유럽이 탄생하기까지 1천 년의 역사를 다룬 역작. 훈족에게 쫓겨 유럽 전체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동유럽의 게르만족, 북구에서 시칠리아까지 유럽 곳곳에 발자취를 남긴 노르만족, 동유럽과 러시아를 만든 슬라브족 등 유럽 여러 민족이 펼치는 역동적인 역사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탈무드에서 마크 저커버그까지

김욱 지음 | 더숲 펴냄·1만4천9백원

마르크스, 프로이트, 샤갈, 에디슨, 앨빈 토플러, 워런 버핏,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 이들은 모두 유대인이다. 세계 인구의 0.2퍼센트에 불과한 유대인이 이렇듯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을 양산해 낸 비결은 무엇인가? 탈무드에 바탕을 둔 재산형성과 관리, 자녀교육, 인생경영에 관한 유대인의 78가지 비결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름다운 우리 저고리

김혜순 지음 | 김영사 펴냄·4만3천원

세계적인 한복디자이너인 저자가 저고리를 통해 한국의 복식사를 정리했다. 호방한 고려 여인의 긴 저고리, 구중심처 여인들의 격조 있는 삼화장저고리,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무명저고리, 기녀들의 열망이 숨겨진 초미니 저고리 등 당시 여인들의 삶과 사랑이 오롯이 담긴 저고리를 통해 잊힌 복식사를 되살렸다. 저고리의 유래와 종류, 구성, 변천사, 도식화를 비롯하여 저고리 600년사를 완벽하게 복원한 100여 컷의 컬러 도판이 이해를 돕는다.

아빠의 사랑

글과 그림 · 최영순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서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가 주신 것이다. – 율곡 이이

공연 **예술하는 습관** 영국의 작가 앨런 베넷이 2009년에 내놓은 최신작 〈예술하는 습관(The Habit of Art)〉이 무대에 올랐다. 이 작품은 실존인물인 세계적 문호 W. H. 오든과 작곡가 벤저민 브리튼의 가상적 만남을 극중극(劇中劇)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사그라져 가는 대중적 명성을 뒤로 하고 늙어 가는 예술가들의 서글픔, 개인의 프라이버시, 예술가들의 끝없는 경쟁과 자기검열, 연극인들의 삶과 사상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이호재(오든 역), 양재성(브리튼 역) 등 중견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인다.

일시 7월 10일까지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1만5천원 **문의** 1644-2003

축제 **제10회 한국실험예술제**

여름을 뜨겁게 달굴 전위예술가들의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실험예술제에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중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온 3백여 명의 전위예술가들이 참여한다. 서울 홍대 앞 일대 비보이극장·서교예술실험센터·상상마당을 비롯해 인근 거리와 카페가 예술의 무대가 되고, 일반의 상상을 뛰어넘는 행위예술과 사진·미술전 등이 펼쳐진다. 카페·클럽·집·교실 등 일상의 공간을 예술의 공간으로 바꾸고, 예술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물며, 시민의 예술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예술적 가치를 산업으로 확대시키는 컬처노믹스를 구현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행해진다.

일시 7월 23~31일 **장소** 서울 홍대앞 일대 **문의** 02-322-2852

전시 **HOTEL ART FAIR IN DAEGU** 고급스런 호텔 객실이 전시공간으로 변신한다. 침대·소파·콘솔·욕조 등의 객실을 활용해 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이 전시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새롭고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관람자들은 더욱 편안한 전시공간에서 그림은 물론 도예·조각·설치·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무라카미 다카시(일본), 팡리준(중국) 등 외국 저명 작가의 작품들도 전시된다.

일시 7월 8~10일 **장소** 노보텔 대구 15,16층 **관람료** 무료 **문의** 053-421-4774

〈화선, 김홍도〉 공연 중 마치 김홍도가 그린 〈씨름〉도가 살아 움직이듯, 배우들이 무대에서 흥겨운 씨름판을 벌이고 있다.

그림 + 이야기 + 음악 김홍도의 재발견

가무악극 〈화선, 김홍도〉

김홍도의 그림을 가무악극으로 감상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국립극장이 창작한 〈화선, 김홍도〉는 김홍도의 그림이 소재이자 무대 배경이다. 그동안 평면적으로 감상하던 김홍도의 그림에 노래와 춤, 이야기를 붙여 입체적인 가무악극으로 재구성했다.

〈무동〉 〈씨름〉 〈나룻배〉 등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무대 배경으로, 조선시대 풍속화가인 김홍도와 그의 그림 속 등장인물들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그 그림으로 인해 벌어지는 해프닝이 엮여 새로운 재미를 준다.

우리의 장단과 선율을 서양 오케스트라로 풀어 낸 공연 음악도 신선하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서양 실내악단, 정가 코러스까지 총 33명의 연주자가 극의 흐름에 따라 그림 속의 악사가 되기도 하고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되어 감동을 더한다. 〈화선, 김홍도〉는 국립극장이 한국적 콘텐츠를 담아 국가브랜드 공연으로 제작한 야심작이다. 다음달 초연 후, 10월 열리는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에서 폐막작으로 공연될 예정이다. G 글·이제남 기자

일시 7월 8~16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02-2280-4115~6

양희은 노래 40년 어디만큼 왔니?

뮤지컬 〈어디만큼 왔니〉

연합

가수 양희은이 데뷔 40주년 기념 공연 〈어디만큼 왔니〉를 통해 뮤지컬 배우로 변신한다. 자신의 음악 인생과 삶을 그려낼 예정이다.

'아침이슬'을 시작으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네 꿈을 펼쳐라' 등 그녀의 히트곡과 1970~80년대 인기 팝송 등 30여 곡을 들려줄 계획이다. 연출은 이종일 민중극단 대표가, 대본은 양희은이 DJ를 맡고 있는 MBC FM 〈여성시대〉 작가 박금선씨가 맡았다.

이번 공연은 양희은의 40년 음악인생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기획됐다. 1971년 '아침이슬'로 시작돼 대중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주었던 수많은 그녀의 명곡이 창작 뮤지컬 형식으로 새롭게 재구성된다.

공연에 앞서 6월 23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그녀는 "이번 뮤지컬에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살아간 어린 시절, 생계를 위해 노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등 아픔이 다 들어가 있다"면서 "그렇게 상처 입고 가슴 아파했던 (내 과거의) 아이와 화해하는 심정으로 뮤지컬에 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 음악을 시작하게 된 사연, 우상이었던 송창식과의 만남, 젊은 시절 그녀의 고뇌와 치열했던 삶, 공백기를 거쳐 다시 무대에 오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다. 이번 무대 역시 그녀의 오랜 친구나 다름없는 동생 양희경이 함께한다. G

글·박근희 기자

일시 7월 19일~8월 14일 **장소** 대학로 한국공연예술센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8만~10만원 문의 02-541-7110

공연소식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2011 점프	서울 1관 점프 서울 전용극장	7월 1~31일	02-722-3995
헤드윅	KT&G 상상아트홀	8월 21일까지	1544-1555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KBS 부산홀	7월 30~31일	02-2266-3727
피크를 던져라	대전 가톨릭 문화회관 아트홀	8월 7일까지	1599-9210
연극			
말괄량이 길들이기	소극장 다르게 놀자	8월 31일까지	02-747-277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까망소극장	8월 28일까지	02-3672-8868
웰컴투오아시스	광주 우체국보험 기분좋은극장(16층)	7월 10일까지	1600-6689
스릴러공포연극 두여자	하모니아아트홀 동성로극장	7월 24일까지	053-254-7241
콘서트			
2011 임재범 콘서트 -다시 깨어난 거인 청주공연	청주실내체육관	7월 8일	043-222-7200
부활 라이브 콘서트 IN 군산	군산월명체육관	7월 30일	1600-4534
이은미 콘서트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7월 9일까지	031-8018-5200
클래식			
드레스덴 필하모닉 소년소녀합창단 내한공연	세종대극장	7월 15일	02-399-1114~6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 내한공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월 14일	02-599-5743
오페라 / 무용			
서울시오페라단 특별공연 오페라 〈잔니 스끼끼〉	세종문화회관M씨어터	7월 6~10일	02-399-1783
제2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토스카〉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7월 2~6일	02-3476-6224

6월 넷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6월 12일~6월 18일

곡명	가수
1 조율	JK 김동욱
2 살다가 한번쯤	포맨
3 별빛달빛	시크릿
4 나를 잊지 말아요	허각
5 Hot Summer	f(x)
6 님과 함께	김범수
7 사랑이 떠나가네	옥주현
8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박정현
9 Fiction	비스트
10 행복을 주는 사람	이소라

왜 똑같은 '붕어빵 잣대' 들이대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얼마 전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한·중·일 청소년들의 가치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행복하지 못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그뿐이 아니다. 잠자는 시간도, 운동하는 시간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모두 부족하다. 무엇보다 자신의 꿈과 미래 비전을 탐색해 볼 시간이 거의 없다.

청소년이란 어떤 존재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다. 특히 사춘기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급성장하는 시기다. '나는 누구이고 꿈은 무엇이며 적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시기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가? 적성 찾기를 돕기는커녕 오로지 시험점수를 잘 받는 데 올인시키고 있지 아니한가?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났다. 생김생김도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르다. 무엇보다 타고난 소질과 적성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에게 똑같은 틀 안에서 붕어빵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가? 이는 죄악이다. 엄청난 개성말살이다.

타고난 적성 찾기로 교육혁명이 절실한 시기

지금은 조선 왕조시대가 아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획일적인 신분주의는 소수의 엘리트시대를 만들었다. 엘리트들은 문자와 정보를 장악했고 철저하게 신분차별을 자행했다.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 다양성의 시대다. 저마다 자신의 적성을 찾아 마음껏 자기를 실현하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정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전문가가 되고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만인(萬人) 엘리트시대'인 것이다. 이런 시대에 사(士)자 타령은 맞지 않는다.

골프영웅 신지애 선수. 그는 함평골프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는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을 찾아 골프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적성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대학간판은 큰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대학은 단지 선택 조건일 뿐 더 이상 필요조건이 아니다.

요리고등학교를 졸업한 J양, 그에게는 졸업 후 어머니가 권하는 대학의 요리학과에 가는 길과 자신이 원하는 유명호텔주방의 수습사원으로 가는 길이 제시됐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일러스트·박용인

이제는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왕조시대가 아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엘리트가 될 수 있다. 대학이란 학문에 뜻이 있는 일부 학생들이 가는 곳이다. 적성을 무시하고 '졸업장을 따러 가는 곳'이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타고난 적성을 찾아 나서는 교육혁명이 절실한 시기이다.

자신은 한마디로 빨리 '지지고 볶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 진학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살아가다가 대학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고려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대학이란 해당 학문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뜻이 있고, 관련 학문에 적성이 맞는 일부 학생들이 가는 곳이다. 적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졸업장만 따러 가는 그런 곳'이 아니란 얘기다.

지금 우리나라는 딱 한 가지, '타고난 적성 찾기 교육혁명'이 절실한 때다. 그것 하나면 온갖 대학입시 문제, 사교육 문제, 대학과잉 문제, 심지어 반값등록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런데 왜 너나없이 대치하기만 할 뿐 이 만병통치 해결책을 착안하지 못하는 것일까?

글·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표)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시경이 피톤치드의
발산량이 가장 많고 산책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http://www.forest.go.kr

"당신의 심신이 치유되는 시간"

숲은 생명의 근원이며, 인간을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원천입니다.

산림치유는 피톤치드 · 음이온 · 경관 · 소리 등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치유하는 활동입니다.

숲에서의 활동은 치매 · 스트레스 · 고혈압 · 아토피 피부염 · 우울증 등의
질환을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녹화에 성공한 숲을 치유공간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림치유산업을 녹색건강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무료)

금연표시가 없어도 아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까만 매연처럼
기침을 하게 만드는 담배연기!
무심코 불을 붙인 담배 때문에
아파할 아이들을 생각해주세요.
함께 오고 가는 곳,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2011년 흡연실태조사 실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여러분의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6월, 12월 실시_리스피아르 조사연구소)